





문화시설별 접근성  
예술 교육  
가이드

## 목차

1. 예술교육 접근성 가이드에 대한 안내 7
  - 가. 대상과 범위 9
  - 나. 목적과 방향 10
  - 다. 특징과 주의 사항 11
  - 라. 가이드 활용 방법 및 구성 11
2. 장애인과 예술교육 13
  - 가. 장애인에게 예술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15
  - 나. 장애인 대상 예술교육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15
3. 모두를 위한 예술교육에서 고려할 점 17
  - 가. 대상의 인원 규모에 따라 무엇이 달라질까요? 20
  - 나.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은 어떻게 설정할까요? 22
  - 다. 어떤 특성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까요? 24
  - 라. 예상되는 참여자의 장애 유형에 따라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26
  - 마. 예술 장르에 따른 장애인 예술교육 29
  - [참고] 장애인 예술교육 보조기기 사례 32
4. 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까지 35
  - 가. 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프로세스 37
  - 나. 기획 단계 38
  - 다. 홍보 및 모집 단계 47
  - 라. 운영단계 52
  - 마. 성과 환류 및 평가 단계 58
5. 사례연구 61
  - 가. 전시시설의 교육 프로그램 63
  - 나. 공연시설의 교육 프로그램 77
6. 장애인 예술교육에서의 접근성 관련 체크리스트 87











# 1. 예술교육 접근성 가이드에 대한 안내

## 가. 대상과 범위

### 가이드에서 이야기하는 ‘문화시설’과 ‘예술교육’

이 가이드에서 이야기하는 ‘문화시설’은 국내 문화기반시설인 공연장, 문예회관,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중 공연예술과 관련된 공연시설과 시각예술과 관련된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술교육’의 경우 전문 예술가를 위한 교육부터 생활문화예술 교육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으나 공연시설 및 전시시설에서 예술 콘텐츠와 연계되어 감상과 향유를 높이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나이, 성별, 직업, 지역 등의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문화예술에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 가이드에서 다룰 주요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과 장르

이 가이드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 프로그램 중심보다 문화시설과 예술교육에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다양한 여건의 사람들이 장벽 없이 참여하는 환경과 방법을 마련할 때 고민해야 하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공연 및 전시시설에서 진행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음악, 연극, 무용, 공예, 미술 등 장르로 명확히 나누어 진행되기보다 융합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여 예술장르별 교육 접근성 방안보다도 전반적인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과정을 따라 공연 및 전시시설의 관계자와 프로그램 담당자가 챙겨야 할 점들을 담았습니다.

## 나. 목적과 방향

### 접근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증진

본 가이드는 전시와 공연시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입니다. 접근성과 관련하여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부터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보다 많은 관계자가 접근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시도와 경험을 통해 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접근성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프로그램의 운영 흐름과 각 시설별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

프로그램의 운영 흐름을 중심으로 기획, 홍보 및 모집, 운영, 성과 환류 및 평가 등의 실질적인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단계별 핵심 이슈와 고려사항을 점검하고 관련된 주요 프로그램 사례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과정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입니다.

각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상황에 맞추어 규모, 장애 유형, 운영 기간, 대상 등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안과 참고사례를 통하여 담당자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 지속적인 접근성에 대한 논의와 공유가 될 수 있는 동기 제공

예술교육을 위한 접근성 가이드는 정답을 제공하고, 규칙을 정하는 가이드가 아니라 낯선 도시에 도착하여 펼쳐보는 지도와 같은 성격입니다. 각자의 환경에 맞는 경로를 설정하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라며, 그 여정이 다시 공유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지도의 정확도가 높아지듯이,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성에 대한 현장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고 점차 더 넓게 확산, 공유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점차 접근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특히 예술교육 분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성은 이미 주목받고 있으며, 예술 향유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예술교육 분야 접근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문제해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는 것이 본 가이드의 중요한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 **다. 특징과 주의 사항**

###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체크리스트**

본 가이드는 지침이나 규정을 제시하기보다는 생각해야 할 것, 고려해야 할 것, 실천해야 할 것을 제시하는 체크리스트에 가깝습니다.

가이드를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점을 고려하고 어떤 점을 더욱 신경 써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활용**

본 가이드에서 제시된 주요 사항들은 특정한 정답이라기보다는 여러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에 가깝습니다.

접근성 영역에서는 법적 기준 등의 반드시 해당 수준으로 맞춰야 하는 것 이상의 다양한 이슈들이 있으며 이런 이슈들의 경우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각 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환경에 따라 선택 가능한 적절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가이드 활용 방법 및 구성**

### **접근성 전문가가 아닌 예술교육프로그램 관계자들이 직접 활용**

본 가이드 예술교육에 참여하는 모두를 위한 가이드입니다. 접근성 가이드와 같은 접근성 분야에 특화된 인력을 위한 것이 아닌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관계자가 함께 활용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담당자, 강사 등 예술교육 기획과 진행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에서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계자가 참고한다면 담당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적인 접근성 추진을 위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이드의 내용에 따라 각자의 환경에 맞추어 맡은 분야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고 변화 또는 진화시킬 때, 가이드의 완벽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 피드백과 공유

가이드를 활용하면서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반영할 수도 있겠으나, 모두가 접근성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고 이에 대한 확산을 고려한다면 조직과 주변에 공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준비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본 가이드를 활용하면서 축적되는 피드백과 노하우를 공유해 주신다면 지속성 있는 가이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이드의 구성

이 가이드의 주요 구성은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이드에서 주요하게 보고 있는 예술교육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장애인과 예술교육’과 두 번째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전 구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인원 규모, 운영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모두를 위한 예술교육에서 고려할 점’, 세 번째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의 흐름에 맞춰 ‘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까지’ 그리고 네 번째로 전시시설과 공연시설에서 예술교육을 기획할 때 참고할만한 ‘사례연구’로 나누었습니다. 추가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2. 장애인과 예술교육

### 가. 장애인에게 예술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교육은 ‘표현·소통의 도구, 사회성 학습의 도구, 치료적 도구, 정서 순화 도구, 신체 능력 조절 도구’로서의 효과성으로 인해 주목받아왔으며<sup>1</sup>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시설들에서 기획과정의 어려움이나 사고우려, 준비되어야 할 여건을 잘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이 참여하거나 주된 대상이 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많지는 않습니다.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하는데는 비장애인 예술 무관심층이나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모두 심리적인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애 유형별 개별성에 집중한 특정 그룹의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같은 문화예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문화시설에 항시적으로 조성 해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장애 유형별 특정 그룹에 집중한 교육은 효율적인 보조인력의 배치 등 프로그램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 대상그룹의 개별성에 집중할 수 있고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 등 참여자의 안전성과 교육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계층에 대한 집중은 분리를 전제로 하는 방향성으로 갈 수 있어 누군가에게는 차별이 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의 프로그램 전반에 다양한 대상자를 포함하고 골고루 고려하는 방식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나. 장애인 대상 예술교육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는 예술교육 관련 장르를 음악, 미술, 영화, 연극, 문학, 무용, 전통문화, 기타(강의, 융복합 등)로 나누고 있습니다.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과평가 질적연구, 2014

[그림 1] 장애인 대상 예술교육 종류



다양한 예술 장르들이 섞이는 통합예술교육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장르적인 구분으로 예술교육을 생각해 보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장르별로 사용하는 신체의 부분, 표현 도구 및 언어 등이 특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예술교육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술교육의 특징은 크게 ‘예술을 위한 교육’과 ‘예술을 통한 교육’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sup>2</sup>

‘예술을 위한 교육은 예술 자체의 전문성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예술을 통한 교육은 전인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방법적 매체가 예술이다. 예술을 위한 교육은 예술 그 자체의 창작, 감상 그리고 기예를 가르치는 데 초점을 두지만, 예술을 통한 교육은 예술적 정신이나 기법이 가져다주는 미적 체험을 통한 인격교육이 중심이 된다. 즉 예술을 위한 교육이 예술 그 자체를 교육의 목적이자 대상으로 보고 예술적 기술 및 표현력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술을 통한 교육은 예술교육이 기예의 교육을 넘어 더 큰 목적과 가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예술과 삶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이 가이드에서 다루는 예술교육이란, 장애 예술인을 보다 전문적인 인력으로 양성하는 ‘예술을 위한 교육’보다 예술적 감상을 돕고 더 나아가 예술 매개로 나를 표현하고 소통하는 ‘예술을 통한 교육’에 더 가깝습니다.

문화시설에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할 때 보편적으로 고려할 지점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 김은영, 이론과 현장이 살아 있는 문화 예술 교육, 학이시습. 2014.







### 3. 모두를 위한 예술교육에서 고려할 점

보통 장애인 예술교육에서의 접근성 요소는 장애 유형 중심으로 질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현장의 다양한 상황 보면 교육 대상의 수가 적거나 참여자의 개별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접근성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여자 수가 많아지고 참여자의 장애 유형이 다양해지면 그만큼 고려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이렇듯 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참여자 규모, 운영 기간, 구성원의 장애 유형 비율 등 현장의 여러 상황이 접근성이 필요한 부분을 기획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챕터에서는 장애 유형을 포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접근성 요소를 서술하고자 합니다.

[그림 2]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접근성 요소



## 가. 대상의 인원 규모에 따라 무엇이 달라질까요?

### 교육 대상이 1-5명인 소규모 프로그램의 경우

소규모로 진행되는 장애인 예술교육은 무엇보다 ‘참여자의 개별성’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일지라도 각자의 장애 정도에 대한 스펙트럼이 다 다르고, 참여자마다 표현 행위나 반응이 다르고 이유도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자나 강사가 예술교육을 기획 및 계획하는 과정에서 교육 대상의 장애 유형 및 행동 특성에 대한 대략적 정보를 전달받더라도 그 정보만으로 참여자 개개인의 욕구, 관심사, 소통 방식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거나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성 자체가 예술교육 활동에 어려움을 준다고보다 개별성의 격차가 큰 여러 사람이 동시에 현장에서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sup>3</sup> 따라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예술교육에서는 교육 대상이 각자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접근성 장치를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기에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을 갖추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과정적으로 보완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보다 쉽게 표현하자면, (흔한 방식은 아니지만) 교육 대상 한두 명이 참여하는 예술교육에서는 장애인의 장애 특성이나 신체적 조건이 활동 전반에 큰 어려움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즉, 개별성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강사나 기획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속도나 참여방식 등을 고려하며 상황에 따른 활동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접근성 장치의 경우도, 미리 많은 것을 준비하기보다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조금씩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성의 차이가 매우 큰 장애인이 2명 이상 참여하는 예술교육에서는 한 두 명의 강사가 여러 요소나 접근성 장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서 3명이 능숙하게 언어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에 반해 한 명이 그럴 수 없다면 내용 전달에 있어서 쉬운 표현 방식이나 수어/문자통역 등에 대한 보조 수단을 접근성 차원에서 모색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전 참여자의 장애 유형을 미리 전달받아 준비하기에 한계가 있거나 막상 현장에 참여자들이 도착했을 때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접근성이 준비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개별성이 매우 다양한 경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세심하게 강사나 담당자가 참여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며 진행하며 여러 접근성 장치를 시도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장애인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지원사업 <2022 만날 사람은 만난다> 성과자료집, 2022.

그렇기에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법적<sup>4</sup>으로 강사 대 학생의 비율을 1:4로 설정하고 있지만 보조인력이 1-2명 추가로 배치되기도 하여 사실상 장애인의 학습 보조가 1:1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인 예술교육에서 접근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강사 포함 프로그램 운영자 대비 교육 대상의 인원수를 소규모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장애인 예술교육에서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는 미리 어떤 접근성 장치를 준비해야 하는지 계획 중심의 관점 이전에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 교육 대상이 6-10명인 중규모 프로그램의 경우

중규모의 일반적인 예술교육 운영 방식을 예로 들자면, 대략적으로 2명의 강사가 교육 대상과 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대상이 10명 가까이 되면 강사가 여러 돌발상황에 대처하거나 접근성을 촘촘하게 고려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보는 미술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 4명이 스스로 가위나 풀을 사용하기 어렵고, 3명이 강사의 직접적 제안 없이는 재료 선택이 어렵고, 3명은 시각적인 표현 하거나 보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럴 때 마련해야 할 접근성의 장치는 사실상 몇 가지의 도구나 보조기구가 아니라 최대한 많은 보조강사입니다.

실제로 예술교육은 사람과 사람이 교감하며 자신의 표현 활동을 모색하는 활동이므로 강사와 교육 대상의 상시 소통이 중요합니다. 완성된 작품이나 고정된 콘텐츠를 두고 그것에 접근하게 하는 것이 예술교육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 대상의 수가 늘어날 경우, 자세하게 내용과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함께 몸을 움직여볼 수 있는 매개자 자체가 접근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2명의 강사가 10명 정도의 교육 대상과 예술교육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면 우선적으로 강사마다 역할 설정을 계획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중증장애인 등 표현 행위에 어려움이 큰 교육 대상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어떤 상황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누가 이동이나 내용 설명을 맡을 것인지 등을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는 교육 대상의 장애 특성 포함 개별성을 사전에 최대한 조사하여 면밀하게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특수교육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6. 28.>

## 교육 대상이 10명을 넘는 대규모 프로그램의 경우

실제로 10명이 넘는 장애인 예술교육은 2~3명의 소수의 강사 중심으로는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증장애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거나 어렵지 않은 활동을 다수가 함께 연습하는 상황 등에 있어서는 보조강사가 추가 배치된 상황에서 예술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사실상 참여자 개개인의 개별화된 표현이나 예술적 표현 등이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설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수가 협력하며 하나의 놀이나 행위를 시도해보는 과정 설계가 중요해집니다. 활동의 내용이나 방법을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작은 표현 행위에도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참여를 돕기 위해 쉽고 정확하게 내용이나 방식을 전달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도 강사가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요소 등을 모두 고려해 내용 전달을 하는 등 접근성을 마련해야 하기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 나.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은 어떻게 설정할까요?

#### 이벤트성으로 진행하는 단기 프로그램 (1-3회차 내외)

최근에는 문화시설에선 예술교육이 체험형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성 사업(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의 프로그램은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될 때 접근성을 미리 다각도로 마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장애인의 개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가 충분히 쌓여 그것을 바탕으로 접근성을 준비하는 기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장애인마다 어떤 접근성 장치가 필요한지 정보 접근성이나 시설 접근성 차원으로 사전 설문(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예약 시 진행)을 하고 보편적 접근성 방식을 준비해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어나 문자 통역을 준비하거나 장애인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거나 휠체어가 입장 가능한 공간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단기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와 활동 중심인 예술교육에의 접근성을 면밀하게 모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단기 프로그램에서는 일반적 접근성 장치(수어/문자 통역, 공간 접근성 마련 등)의 준비를 기본 요소로 설정하되, 교육 대상이 현장에서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누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전에 프로그램 강사나 담당자가 현장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혹은 어려운 접근성 장치의 범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해당 프로그램은 문자통역이 제공되며, 약간의 턱이 있는 1층 공간에서 진행되어 현장에서 문의 시 보조인력이 교육 대상의 공간 입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처럼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장기 프로그램 (10회차 이상)**

예술교육의 운영 기간이 늘어나면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 접근성 장치 마련과 더불어 교육 대상을 현장에서 관찰하며 개별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예술교육은 교육 대상이 갖는 다양한 특성을 프로그램 현장에서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교육 대상의 특성이나 참여의 어려움이 장애 유형으로만 전부 예측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술교육에 접근한다는 것은 교육 대상이 직접 창작 및 표현 활동에 참여하거나 주체적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어나 문자 통역 등만을 배치하는 것만으로 모든 접근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술교육에서의 접근성 장치나 요소가 현장에서 끊임없이 보완, 개선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장기적으로 교육 대상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10회차 이상의 장기 프로그램에서는 교육 대상의 개별성을 강사나 담당자가 지속해서 관찰하고 접근성 요소의 보완이 필요한지를 참여자와 협의, 확인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비장애인 중심의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전제된 접근성 장치를 단순히 배치,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교육 대상을 직접 보고 미세한 움직임이나 신체 조건을 고려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문화시설 내부의 노하우 등이 쌓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다. 어떤 특성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까요?

### 특정 장애 유형을 중심으로 구성할 경우

보통 예술교육에서 장애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장애 유형에 따라 내용을 모색하게 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특정 장애 유형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초청 프로그램 제외) 하나 이상의 장애가 있는 중복장애인의 참여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애 유형과 관련하여 예술교육의 접근성을 고려할 경우에는 유형별 세부 내용을 기획하기에 앞서 ‘특정 장애 유형이 집중된 경우’와 ‘여러 장애 유형이 포함된 경우’ 그리고 ‘장애, 비장애 통합의 경우’로 크게 구분해 상황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특정 장애 유형이 집중된 경우

‘특정 장애 유형이 집중된 경우’는 그 장애 유형의 일반적 접근성 장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이 다수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수어 통역과 문자 통역 중 어떤 것이 주로 필요한지 혹은 모두 필요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다수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활동 내용을 안내하는 자료를 시각정보 외에 청각적, 촉각적 정보 등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휠체어를 타거나 계단 사용에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다수 참여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물리적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장애 유형을 가진 사람의 활동 참여방식과 표현 방법이 일관적이고 제한적일 거라는 고정된 견해와 사고를 조심해야 하며 그것을 전제로 활동 내용 자체를 소극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보는 행위, 시각예술적 표현에 서툴거나 관심이 적을 것이라고 전제하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보는 방법’, 혹은 ‘본다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 등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교육의 내용 자체도 접근성과 연계해서 함께 논의되어야 장애인이 실제로 활동 자체에 다채롭게 접근하며 자기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본다’라는 말을 씁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친구와 예술을 보러 가다, 가와우치 아리오, 다다서재, 2023>라는 책에서 전맹인 친구와 함께 전시를 ‘보러’ 미술관에 다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책 내용에 따르면 작품에 대한 형태 묘사와 설명을 ‘듣는’ 것을, 작품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 여러 장애 유형을 포함하는 경우

교육 대상의 인원수와 상관없이 여러 장애 유형이 포함된 교육 현장도 많습니다. 이것은 접근성 장치를 확정하여 계획하고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충분히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변수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바탕으로 교육 대상 모두의 접근성을 한 번에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앞서 언급했듯이 끊임없이 교육 대상을 관찰하며 추가하거나 보완할 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보완할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할 담당자가 주요 인력으로 상시 배치되는 것입니다. 주요 인력이 섬세하게 살펴야 하는 부분은 매우 넓은 범위를 전제합니다. 예를 들어, 소근육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 참여할 경우(그 사람의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일 수도 있고 중복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종이를 가위로 미세하게 자르는 활동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옆에서 함께 종이를 잡아줄 '사람'입니다. 혹은 가위질 대신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즉, 교육 대상의 주체적 표현이 이루어져야 예술교육에의 참여 의미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다양한 장애 유형이 한 현장에 포함되어 있을 때 여러 사람이 보조인력이나 협력자/매개자로 배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 장애, 비장애 통합의 경우

장애인 예술교육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프로그램의 운영보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예술적 표현 활동에 참여하는 부분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장애, 비장애 통합 프로그램도 최근 여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엇보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과 속도로 참여하고 있음을 교육 대상들 전체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에는 장애인 교육 대상의 접근성 장치를 프로그램 내에 자연스럽게 기획,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장애인을 위한 배려의 요소로서 접근성 장치가 두드러지게 기획, 강조되지 않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합니다.

사실 접근성 장치를 여러 측면에서 마련해 두면 비장애인도 보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동이나 입장이 수월한 공간에서 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방식으로 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 통역도 비장애인에게 소통 과정에서 원활한 참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에서 접근성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어나 문자 통역 등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접근성 장치를 비장애인이 예술교육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이 문화적 경험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접근성 보조 장치를 확인하게 된다고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예술을 매개로 만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장애, 비장애 통합 프로그램에서는 접근성 장치 자체가 가지는 의미나 역할을 먼저 고려한 후 장애인 교육 대상의 특성을 바탕으로 세부 요소를 마련, 보완해 나가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고려 요소를 바탕으로 기획, 운영단계에서 장애 유형과 장르 등을 고려하며 세부 내용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장애 유형만을 중심으로 일반적 접근성 장치만을 제공하듯 준비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예술교육 참여에 한계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일단 프로그램의 규모와 교육 대상의 구성 등을 고려한 전반적 관점을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라. 예상되는 참여자의 장애 유형에 따라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앞서 장애 유형 중심으로만 예술교육에서의 접근성을 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개별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장애 유형 중심으로 취합되는 경우가 많고 장애 유형별 일반적, 보편적 접근성 고려 요소는 살펴볼 필요가 있기에,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 이 챕터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 지체장애

지체장애인도 신체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사용 가능한지 혹은 어려운지 각자 매우 다른 개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화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테이블을 사용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휠체어를 고정하고 창작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테이블의 위치와 크기, 높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바닥에 앉거나 서서 하는 활동이 계획될 경우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휠체어에 앉아 참여하는 방법까지 고려한 기획이 필요하며 활동에 참여하는 자세가 교육 대상에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 장소의 조건 때문에 지체장애인이 활동 과정에서 이동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실내의 교육 장소까지는 지체장애인이 입장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내용에 야외로 나가 자연을 관찰하는 활동을 기획된 경우, 이동 경로 내 장애물들로 인해 이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함께 이동 방식

자체를 협력하는 것도 활동 과정에서의 방법적 시도가 될 수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자연을 접하는 활동을 지체장애인을 고려해서 재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소근육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종이를 미세하게 가위로 자르거나 작은 도구로 악기를 튕겨 소리는 내는 등의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어려움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만이 접근성을 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표현 행위를 할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방법이나 재료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적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이 크게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시각적 표현이나 음악적 표현을 할 수 있는 도구 등을 재배치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점토를 이용하며 주먹으로 두드리거나 손바닥으로 누르는 정도로도 시각적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기를 손으로 두드리거나 문지르는 정도로도 소리가 나는 소리 도구를 찾아 활동에 사용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시각장애

예술교육 과정에서 주로 시각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 및 표현 방법을 소개하거나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행위나 촉각, 청각 요소 중심의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컵 안에 모래를 넣어 소리가 나는 악기를 만드는 활동을 할 경우, 재료들을 교육 대상의 손이 닿는 곳에 두고 하나씩 만져보며 종류나 특성을 탐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드는 방법을 동작 중심의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종이컵과 모래를 이용해 악기를 만들어보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컵 두 개를 고르고 하나를 똑바로 세운 후 그 안에 모래를 원하는 만큼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이컵을 세운 종이컵 위에 뚜껑을 닫듯이 덮어 테이프를 붙여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종이컵을 흔들어보면 소리 나는 악기가 됩니다.’와 같이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움직임, 무용 활동을 할 경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나 앞에 서 있는 강사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동작을 하나씩 말로 설명하거나 시각장애인 바로 옆에서 동작하며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옆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 신체의 접촉이나 발소리 등으로 미세하게 느끼며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활동 전반에 있어서 시각장애인과 거의 1:1로 매칭된 보조인력이 주변의 상황이나 강사의 동작, 표현 방식 등을 말로 풀어서 묘사, 전달해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1 매칭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강사가 활동의 과정을 더욱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활동을 진행해 보세요. 이때 현재 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몇 명 정도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등을 자세히 묘사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청각장애

청각장애인이 포함된 프로그램에서는 당사자가 문자통역과 수어통역 중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혹은 둘 다 필요로 하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자리에서 해당 통역이 잘 보이는지 통역사나 문자통역 모니터 등의 위치를 사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자통역 모니터를 따로 설치하는 것보다 개별 문자통역기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그와 관련된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문자통역 내용이 모니터에 계속 나올 경우 강사의 다른 안내나 활동의 내용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개별 문자통역기를 통해 통역을 전달해 받는 것이 더 편리한 청각장애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활용한 예술교육의 경우 청각장애인이 진동이나 떨림을 바탕으로도 음악의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청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재생하기보다는 음악의 볼륨, 박자가 진동으로도 드러나는 스피커 등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음악을 누군가 현장에서 직접 연주할 때 이를 시각적으로도 표현(음파의 고저 등)하여 음악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

발달장애인의 경우 문자와 언어 중심의 논리적 내용 전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다 보면 앞선 활동이 다음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시간 순서에 따라 활동이 단계적으로 구성되곤 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이전에 어떤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해서 다음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여러 활동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단계적인 구성이 갖는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1) ‘숲’이라는 주제를 제시하고 2) 떠오르는 장면이나 생물 등을 이야기하는 활동으로 넘어갈 경우, ‘숲과 관련된 무언가’를 떠올려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참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1) ‘숲’에 대한 대화 이후 2) ‘숲에 사는 식물이나 동물’을 그리거나 움직임을 몸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할 경우 누군가는 주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기획 의도와 전혀 다른 평소에 좋아하던 사람의 얼굴을 그리거나 익숙한 동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더욱 직관적이고 비언어적인 활동을 기획하는 것이 접근성을 마련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와 관련한 사고를 바탕으로 세부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던진다, 어떤 동작을 한다, 소리를 낸다, 재료를 만져본다 등 더욱 행위적으로 직관적인 활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언어적이고 논리적인 활동에 접근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기보다는 비언어적이고 단일한 행위 자체를 배치함으로써 예술교육에 발달장애인이 반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중복장애**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장애 유형들은 교육 현장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존재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개별 장애 유형에 따른 접근성 요소를 모두 마련하려는 시도보다는 여러 장애 유형이 동시에 있으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상 어떤 접근성을 먼저 고려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나 기획자는 다양한 중복장애인을 현장마다 새롭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때마다 어떤 태도나 열린 기획을 시도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미리 완성된 접근성 장치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여러 요소를 재배치,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마. 예술 장르에 따른 장애인 예술교육**

### **미술**

미술은 여러 재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장애인에게 더욱 익숙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료마다 촉감이 다르고 시각적 표현도 폭넓게 할 수 있어 장애인이 재료를 탐색하거나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자기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여 일반적인 미술 도구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 촉각 요소가 다채로운 일상 속 사물이나 자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의 사물을 관찰하거나 공간의 내외부를 이동하며 자신에게 흥미로운 재료를 찾아보는 것도 미술 활동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미술 도구도 다른 방식의 표현 도구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그리기 도구로 사용되는 연필이나 색연필을 그리기용이 아닌 입체 도구로 바닥에 나열하여 길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연필이나 색연필의 촉감을 다양하게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 음악

악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 악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참여의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쉬운 표현이나 그림 중심의 다른 악보를 마련하거나 보조인력이 악보를 몸짓과 추임새 등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 악보를 제공하거나 진동 및 소리 등으로 리듬을 설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활동의 경우, (큰 소리나 반복적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활동의 참여 자체를 힘들어하는 사람의 경우) 그 소리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소리나 음악을 듣고 따라 해보는 활동에서 청각장애인이 참여의 어려움이 있다면 '듣는다'라는 행위나 소리의 의미 자체를 재해석하는 새로운 활동이 기획, 시도될 필요도 있습니다.

## 영화

시나리오나 대본을 중심으로 촬영, 편집하여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고려해 쉬운 표현이나 이미지 요소를 중심으로 영상의 흐름을 그려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촬영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고려하여 장비를 들거나 작동시킬 수 있는 장치를 보완 및 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연극

시나리오나 대본 등 텍스트 중심의 요소를 필요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기획하여 교육 대상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은 대본 없이 즉흥 연기를 할 경우 서로의 미세한 몸짓이나 표정들을 보거나 대사를 듣고 연기를 하는 활동에 있어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하거나 점자 대본, 문자, 수어 통역을 준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성 장치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는지는 프로그램의 의도에 따라 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나 내용,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 일반적인 접근성 장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으나 그 외에 비언어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서로 반응하며 창작하는 것이 의도에서 중요하다면 다른 접근도 가능합니다.



## 무용

비언어적인 요소가 매우 극대화된 신체 표현 중심의 활동이기에 언어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 문자의 의미를 이해해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몸짓과 움직임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몸의 일부를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지체장애인은 참여의 한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오히려 기존의 무용 표현 방식을 해체하고 재개념화한다면 다양한 참여가 가능합니다. 미세한 근육을 움직이거나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는 몸짓을 탐구하는 등의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접근성 장치 역시 그 사람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인력이 아닌 함께 움직이고 속도를 맞추는 협력자나 협업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리나 리듬에 따라 반응하며 무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진동을 바탕으로 리듬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예술교육에서의 접근성은 프로그램의 의도에 따라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통문화

음악적 요소, 미술적 요소, 연극적 요소 등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방법론을 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부 장르나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위의 다른 장르를 참고한 접근성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 문학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점자 텍스트를 준비하거나 교육 대상의 말을 텍스트로 기록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기 생각을 언어나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그 사람이 하는 말속에 분절된 단어, 문장 등도 문학적 요소로 전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재구성해볼 수 있도록 문자 카드나 블록 등을 놀이도구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술교육에서의 접근성은 기존에 있던 장치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차원을 넘어 교육의 방법론 자체로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 장치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문자를 어떻게 재인식하게 할 것인지’처럼 방법론을 예술교육 활동의 일부로서 기획하거나 실험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 [참고] 장애인 예술교육 보조기기 사례

문화시설에서 진행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 참고할 수 있는 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의 종류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항목들을 필수 구비 용품이 아닌 프로그램 진행할 때, 다양한 장애 정도와 상황의 참여자들이 도움을 받으며 참여할 수 있는 보조기기의 참고 예시입니다.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일상과 생활에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산하 중앙보조기기센터 및 각 지자체의 보조기기지원센터에서 대여 등이 가능하며, 이 외에도 장애인의 소프트웨어 활용과 정보 접근성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지원사업, 장애인의 직업 활동과 장애인 고용 사업장을 돕기 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sup>5</sup>

5.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https://www.knat.go.kr/>),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의 정보통신보조기기 (<https://www.at4u.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전용몰(<https://atkeadshop.co.kr/>) 참고



## | [표 1] 학습 및 교육 보조기기 예시 |

품목 및 기기명 설명	제품 사진 예시
휴대용 점자 기록기 (점자정보 단말기)	점자를 입력하고 출력할 수 있는 휴대용 정보 단말기
그리기 및 쓰기용 수동 장치	손가락 및 손목의 힘이 약해 필기도구를 쥌 수 없는 경우 이용하는 필기도구로 펜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글쓰기 및 그리기 활동 가능
압력스위치 (버디스위치)	컴퓨터 연결하여 마우스를 대신하여 사용 가능한 누르기용 스위치, 압력 등을 조정 할 수 있음
소리증폭기	음성 및 소리를 증폭시켜 들을 수 있는 보조기기로 전화/헤드폰형 증폭기와 목걸이형 증폭기 등으로 나눌 수 있음
이지그립가위 (잡기쉬운가위) / 2인용 가위	이지그립가위는 쥐기가 쉽고 탄력이 있어 손아귀에 힘이 약하더라도 쉽게 가위질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가위  2인용 가위는 2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훈련 가위로 가위질을 잘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보조자가 가위의 후면을 잡고, 사용자는 가위의 전면에 손가락을 끼워, 함께 작업할 수 있음
휠체어 부착 그림그리기 보조도구	휠체어 부착 가능한 그림그리기 보조기기로 휠체어를 타고 그림그리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발
글자 확대기기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이 책이나 신문 등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구	문장을 구사하거나 구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보조기기로 그림상징이나 어휘 등을 선택하여 소통함
우퍼조끼	청음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음악과 리듬을 진동으로 바꾸어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보조기기







## 4. 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까지

### 가. 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프로세스

문화시설과 공연의 창작과 제작을 맡은 주체,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체들이 더욱 다양한 관객(관람객)의 참여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때 도움이 될 참고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문화시설에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1) 기획, 2) 홍보 및 모집, 3) 운영, 4) 성과 환류 및 평가의 단계를 갖게 됩니다. 접근성은 이 과정 중 기획 단계에서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목적 및 방향성에 따라 접근성 장치도 기획해야 해야 하지만 이후 교육 대상에게 내용을 알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세부 기획이 필요하고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흐름을 되돌아보는 성과 환류 및 평가의 단계도 필요합니다.

[그림 3] 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프로세스



공연 및 전시시설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떠올릴 수 있는 형식으로는 예술교육 강좌/아카데미, 창작자/예술가와의 만남 프로그램, 백스테이지 투어, 도슨트 투어, 공연/전시 연계 프로그램 등이 있을 것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더욱 개별화된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통한 접근성 확장하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 나. 기획 단계

### | [표 2] 기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접근성 요소 |

가. 목적과 방향성의 설정	<p>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p> <p>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자를 설정하는 데 장애인 등 다양한 개별성을 가진 이들이 포함되었습니까?</p> <p>프로그램 방향성에 예상되는 주요 대상자들의 참여목적을 고려하였나요?</p>
나. 프로그램의 형태 구상	<p>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을 준비할까요?</p> <p>구상하는 프로그램은 가능한 다양한 특징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까?</p> <p>대상 인원 및 운영 기간 등 프로그램 규모는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가요?</p>
다. 활동공간의 설정과 접근성 환경 조성	<p>교육 장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p> <p>교육 장소는 공연/전시시설의 주요 건물에 위치합니까?</p> <p>공연/전시장과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에 있나요?</p> <p>시설의 안내도 및 표지판을 참고해 교육장을 쉽게 찾을 수 있나요?</p> <p>안내인을 거치지 않아도 교육장에 입장할 수 있나요?</p> <p>장애인이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교육 장소로 이동할 경우, 주변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 등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나요?</p> <p>교육 장소에 휠체어 입장이 가능한가요? (주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1층 이외 장소의 경우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 등)</p> <p>교육 장소에(혹은 인근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나요?</p> <p>장애인이 프로그램 중간이나 이전, 이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나요?</p> <p>시각장애인 참여자를 위해 공간 내에 점자블록이나 점자 안내물이 설치되어 있나요?</p>
라. 예술교육 전문가/ 보조인력의 구성	<p>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할 인력의 구성은?</p> <p>프로젝트 초기 접근성을 논의할 워크숍이나 조직 내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나요?</p> <p>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장애인)예술교육 전문가의 자문이나 참여가 이루어졌나요?</p> <p>장애인의 개별성을 충분히 살피며 접근성 요소를 기획, 보완할 수 있는 규모로 교육 대상의 인원을 설정하셨나요?</p> <p>강사 및 보조인력을 포함한 프로그램 운영자 대비 교육 대상의 인원수를 1:5 이하로 설정하셨나요?</p>

마. 대상자와 상담 과정	<p>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p> <p>프로그램 계획을 확인해 줄 장애인 당사자나 전문인력이 참여/검수가 진행되었나요?</p> <p>주요 대상자가 특정되는 프로그램이라면 해당 장애인 등 접근성 문제를 겪는 당사자와 회의가 있었나요?</p> <p>준비한 보조 학습기구 등 접근성 장치에 대해 이용자를 통한 현장의 수요를 확인하였나요?</p>
------------------	---

## 1)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 프로그램 운영의 목적과 방향성 설정

공연과 전시시설에서 기획 및 진행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예술의 감상과 향유에 도움을 주는 요소인지 예술 작품에 직접 참여하거나 함께 만들어 나가는 예술 체험과 표현의 요소인지, 예술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의 목적인지 등 프로그램 운영 목적이 매우 다양합니다.

접근성을 고려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무슨 의도와 목적’을 반영할 것인지를 더욱 첨예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왜 장애인 예술교육을 하고자 하는지’, ‘참여 대상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것을 얻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먼저 필요합니다.

또한, 문화시설을 방문하는 장애인이 예술교육을 통해 자기표현의 범위를 확장하기를 바라는지, 예술적 경험 기회를 얻기를 바라는지, 다양한 표현 방식을 시도하기를 바라는지 등 구체적 방향성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대상과 강사가 상호적 소통을 중심으로 하며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찾아가는 것을 프로그램 방향성으로 설정한다면, 기본적인 접근성 장치를 지원하되 세부적인 표현 활동에까지 다른 도구나 장치를 마련할지는 추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이 작품에 대한 경험을 확장하는 것이라면 예술 콘텐츠를 기획하는 초기 단계부터 감상과 향유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접근성 장치를 도입할 것이며 이런 준비들과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 비장애 통합 프로그램의 경우도 교육 대상들이 어떤 경험을 하기를 바라는지에 따라 접근성 장치를 기획하는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장애인에게만 예술교육의 의미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삶의 다양성, 인간의 다양성 자체를 경험, 공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접근성 장치도 장애인만을 고려해서 배치하기보다는 비장애인도 그 장치를 경험하며 함께 무엇을 느낄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배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2)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을 준비할까요?

### 공연/전시시설의 예술교육 프로그램 형태의 설정

공연 및 전시시설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여러 유형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크게 ‘체험과 참여’가 중심인 프로그램과 ‘지식전달’을 중점으로 하는 프로그램 정도로 유형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 유형에 포함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체험 및 참여형 프로그램** : 관객(관람객)이 직접 예술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시각, 공연, 음악 등 예술 장르에 기반하여 작품을 직접 만들거나 참여하는 예술교육, 예술가와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고 하나의 예술 주체로 참여하는 워크숍, 전시나 공연 콘텐츠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백스테이지 투어,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 더 나아가 문화공간에 직접 오기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아웃리치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지식전달형 프로그램** : 전문가나 예술가의 전문 지식을 나누어 예술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이해를 돕는 강연과 포럼 등으로 예술가와 참여자가 직접 소통하며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 예술 철학에 관해 이야기하는 아티스트 토크, 학예사나 평론가 등이 진행하는 미술사, 미술 이론 강연이나 배우, 감독, 연출가 등 작품 관계자들과 관객이 함께하는 GV 프로그램 등입니다.

### 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 및 운영 기간 설정

시설별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지 정했다면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과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3. 모두를 위한 예술교육에서 고려할 점’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참여하는 인원을 소규모로 진행할지, 보다 큰 규모로 진행할지 고려가 필요하며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 또한 원데이클래스나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할지, 몇 주, 몇 개월 단위로 장기적으로 운영할지 등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예) 1) 체험/참여 중심: 예술 활동, 워크숍, 투어 프로그램 등  
⇒ 주요 대상자(군)의 개별성을 더욱 고려하는 기획  
2) 지식전달 중심: 강연 및 포럼, 창작자와 만남 등  
⇒ 다양한 참여자를 가정한 보편적인 접근성 중심 기획



## 장애 유형보다 대상자의 개별성에 집중한 기획

일반적으로 장애인 예술교육은 장애 유형을 기획의 시작점으로 두고 그 유형을 가진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어떤 기획이 의미 있을지를 고려해 내용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장애 유형만이 기획의 핵심 요소로 작동하는 것은 접근성과 프로그램의 내용 등을 좁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장애인 예술교육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접근성 기획 방식이 존재합니다. 먼저 교육 대상을 미리 설정하여 먼저 관계를 맺은 후 그 사람들과 함께할 예술교육을 기획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관계성이 있는 장애인의 개별성을 더욱 면밀하게 고려하여 기획의 주제로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장애 유형이 있는지 외에도 참여자의 관심사를 중점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필요한 접근성 장치 역시 자연스럽게 고민하고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을 개별적으로 떠올리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장치, 혹은 공동 활동에서 필요한 상호적 소통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화된 특성들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의도를 고려한 접근성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기획이 결정된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이 교육 대상으로 참여하게 되는지 모집 등을 통해 추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무엇보다 교육 대상의 개별성을 미리 확인할 수 없어 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 등에게 실제로 필요한 지원 요소나 장치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각장애인도 각자 보이는 정도나 양상이 다르며 청각장애인도 수어나 문자 통역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는 보호자, 주변인, 매개자 등이 자세히 그 사람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조사는 온라인 설문지나 메일, 전화 등으로 진행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편적인 접근성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Ⅰ [표 3] 장애인 예술교육에서의 상황별 접근성 기획 Ⅰ

기획 상황	접근성 기획 방안	접근성 장치 보완
교육 대상의 개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참여자 개개인의 개별성을 바탕으로 촘촘한 접근성 장치 마련	실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
교육 대상의 개별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 사전 설문 및 조사를 바탕으로 장애 유형과 개별성을 반영한 보편적인 접근성 장치 마련	

### 3)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장소는 어떤 곳을 선택해야 할까요?

####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 환경조성

문화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마련 방안과 고려지점에 대해서는 앞선 총론과 공연 및 전시시설 접근성 가이드에서 상세히 다루었으며 방법론적으로 같은 기준들이 교육 장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 접근성은 프로그램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접근성 요소입니다. 교육 장소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 ‘누구나 그 공간에 큰 무리 없이 올 수 있느냐?’, ‘공간에 오기까지 위험 요소는 없는가?’를 고려해야 하며 장소 전성의 과정부터 교육 담당자뿐 아니라 공연/전시시설의 같이 일하는 동료나 시설 관리자 등에게 어려움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예술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물이나 공간의 입구에 턱이 없거나,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1층이 아닌 경우 휠체어 등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가 원활히 이동할 수 있는 복도 등의 폭이 확보되어야 하며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공간에 찾아오기 위해서는 점자블록이 설치되거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안내자가 있는 것이 보다 좋은 시설 접근에 대한 고려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접근성 관련 세부 내용은 공연 및 전시시설 관련 공통 내용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이 교육 장소까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서 오는 경우, 출퇴근 시간에는 장애인 콜택시와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장 포함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시설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보완되어야 할지, 어디서부터 변화를 주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사전에 장애인을 초청하여 공간 개선을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사전 조사를 통해 변화가 필요한 지점을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입니다.

### 4) 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할 인력의 구성은?

#### 예술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과 역할

앞서 재차 강조한 것처럼 예술교육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예술교육 전문인력과 프로그램 활동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보조강사 등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처음 시도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다면 ‘접근성 전문인력’과의 협력이나 자문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접근성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해 공연 기획 등 분야에서 ‘접근성 매니저’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을 포함하여 접근성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이나 자문, 인터뷰 등을 통해 예술교육 현장에서 접근성 부분의 필요 지점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예술교육에서의 접근성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접근성 매니저 등 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구성 이전에 프로젝트나 자문단 형태의 논의 그룹을 구성하여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접근성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접근성 매니저와 같은 전문인력도 매우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힘들 경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보다 프로그램 담당 및 기획자가 직접 장애인 등 당사자를 만나서 프로그램 구성과 기획에 관해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 시 포커스그룹을 특정해 개별적인 상담이나 회의 자리를 마련해 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 등에게 실제로 필요한 지원 요소나 장치를 묻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권장되는 강사와 보조인력 규모

장애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 예술의 종류와 난이도, 프로그램의 목표와 방식 등에 따라 강사 및 보조인력의 필요 정도와 전문성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 및 보조인력의 비율은 프로그램의 특성과 참여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몇몇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 및 보조인력의 비율은 대략 '1:5(교육인력:참여자)' 정도가 적당하다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간한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에서는 장애 학생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강사 1명당 보조인력 1명, 학생 5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에서는 강사 1명당 보조인력 1명, 학생 4~6명의 비율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비율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각 프로그램의 특성과 참여자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매개자의 역할

장애인 예술교육에 있어서 매개자에 대한 논의는 주로 여러 공공기관의 '매개자 양성과정' 등을 통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매개자는 기획자, 강사, 보조인력, 실무자 등 장애인 예술교육 현장과 관계된 주요한 운영 주체 및 협력자

전반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예술교육 현장에서 특히 강사 외에 여러 주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매개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실제로 이들의 개입도, 관점, 협력, 조력이 활동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기획자나 강사가 어떤 활동을 제시했는데 교육 대상 한 명을 전담 보조하는 인력이 과하게 개입하거나 기획 의도와 반대되는 보조를 하는 경우 활동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개자의 역할이나 개입 자체가 장애인 예술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접근성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참여자별로 개별화된 소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대상과 매개자가 1:1로 소통하며 상황마다 필요한 접근성 요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매개자 포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과 교육 대상이 거의 1:1 비율로 현장에 있어 소규모로 협력,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장애인의 개별성이 존중될 수 있어 접근성의 확보가 오히려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개자의 역할은 인적 요소를 통한 접근성 확보로서 중요합니다. 예술교육이 다양한 사람들의 소통과 협업, 문화적 경험을 통한 자기표현 등을 중요하게 전제하기 때문에 사람 간 관계를 통한 접근성 모색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양성과정’이 운영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장애인에게는 어떤 조력이 필요하다는 매뉴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어나갈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나눕니다. 이것이 매개자의 역할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2022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발달장애인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연구보고서 - 움직임언어 프로그램 연구개발<sup>6</sup>

[그림 4] 발달장애인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_ 움직임언어 <춤추는 별별별>



©홍혜전 안무가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무용 및 움직임 관련 문화예술교육에서의 매개자의 자세 강조

해당 연구에서는 홍혜전 안무가가 문화예술교육에서의 매개자의 태도를 강조하였다. 강사는 움직임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 대상이 지닌 자기 고유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확장하도록 돕는 매개자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개자의 자세를 제시하였다.

- 1) 기다리기 : 참여자마다 각자의 시간이 다를 뿐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도와주거나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과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 2) 비가시적인 춤 인정하기 : 수업 중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는 참여자에게는 함께 할 것을 권유하되 집요하게 설득하지 않는다. 이미 자신의 춤을 추고 있는데, 그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춤일 수 있기 때문이다.
- 3) 춤출 권리와 춤추지 않을 권리 발견하기 : 수업을 방해하는

6. <https://www.i-eum.or.kr/board/read?boardManagementNo=23&boardNo=3088&searchCategory=&page=2&searchType=&searchWord=&level=2&menuNo=44>

참여자의 지나친 행동에는 단호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참여자에게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는 있으나 '타인의  
 시간을 방해할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 4) 유연한 아이디어와 순발력 지니기 : 참여자들은 교육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계획 중심의  
 수업내용이 아니라 불명확한 것을 인정하고 새로움을 보고  
 판단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 다. 홍보 및 모집 단계

### | [표 4] 홍보 및 모집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접근성 요소 |

가. 관계사회와 협력구조	<p>홍보와 참여자 모집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p> <p>주요 대상자 그룹과 연관하여 지역사회 및 프로그램 대상자 커뮤니티와 관계기관에 협력을 요청하셨나요?</p> <p>협력 기관 및 지역/대상자 관계 커뮤니티의 구성원과 소통 구조가 이루어졌나요?</p>
나. 현장의 소통계획	<p>프로그램 현장에서 소통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p> <p>수어, 문자 통역사와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번역에 대해 논의를 거쳤나요?</p> <p>교육 및 행사자료 작성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설명 자료를 준비하였나요?</p>
다. 프로그램 정보의 전달	<p>프로그램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요?</p> <p>프로그램 홍보 및 교육 대상 모집 과정에서 쓰이는 홍보물에 쉽고 자세한 표현을 사용하였나요?</p> <p>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온라인 홍보 및 모집 과정에서 이미지나 텍스트에 대한 음설 해설 안내를 하였나요?</p> <p>문화시설의 홍보 소식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 내 장애인 커뮤니티나 단체 등에 직접 홍보를 시도하였나요?</p> <p>프로그램 홍보 및 모집 관련 문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장애인이나 보호자, 매개자 등이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도록 하였나요?</p>

#### 1) 홍보와 참여자 모집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 관계 사회와 지속적인 협력구조 마련

공공기관 중심의 장애인 예술교육 사업 구조를 살펴보면 보통 특수학교, 복지기관, 보호센터 등 시설 안에 있는 장애인 대상의 사업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 영역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던 관점이 예술교육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기관 간 협력 역시 시설 중심의 장애인 이용자를 고려한 사업이 주로 기획됩니다.<sup>7</sup>

장애 유형에 따라 직접 예술교육의 참여 신청을 하지 못하고 보호자가 대리인으로

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장애인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지원사업 <2022 만날 사람은 만난다> 성과자료집, 2022

신청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이 예술교육과 관련된 공개 정보를 직접 접하고 스스로 선택하기에 현실적 한계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술교육을 홍보하거나 교육 대상을 모집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조력이 필요한 장애인을 모집 단계에서 고려합니다. 관련 기관이나 시설 담당자, 혹은 보호자 커뮤니티 등에 프로그램의 내용을 전달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경우, 해당 기관 담당자, 보호자에게 어떻게 참여 필요성을 설득할지를 고민합니다. 이때 장애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습 보조도구 등 접근성 장치의 실제 수요 파악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접근성 관련 요소를 수요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문자 통역, 수어 통역, 이동지원 등을 장애인이 필요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는 문항을 신청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마다 필요한 장치가 매우 다르거나 다양할 수 있어 개별적 의견을 추가로 작성, 전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획 주체가 임의로 설정한 접근성 장치만을 제시하기보다 신청자가 자신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작성할 수 있는 빈칸을 마련해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접근성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미세한 차이로 다른 시도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 경기문화재단 ‘2021 경기 장애아동 가족 예술교육 프로젝트 <포르르와르르사르르>’의 사전 신청서 사례

‘포르르와르르사르르’ 프로젝트는 장애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예술교육 활동으로 언어나 문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신체적 감각으로 느끼거나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의 요소를 기반으로 기획된 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장애아동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및 키트 신청 문항을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이 자기 결정권을 바탕으로 직접 신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보호자가 아동의 입장에서 관심사와 특징 등을 중심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아동 이름을 알려주세요.
2. 아동을 소개해주세요. 장애 유형을 꼭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에 대해 자유롭게 소개해주세요.
3. <포르르와르르사르르>에 함께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적어주세요. 이 답변이 선정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포르르와르르사르르>를 찾아주신 건지 궁금합니다.
4. <포르르와르르사르르>에 참여할 가족 구성원의 숫자를 알려주세요. 참여 키트의 구성품을 결정하는 데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 2) 프로그램에서 소통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 수어/문자 통역 전문가의 협력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는 데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통역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TV 방송의 수어 통역뿐만 아니라 주로 공공기관의 행사에서 스크린의 자막을 통한 현장의 문자 통역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음성해설 등 작품의 번역 매개자, 통역자 등은 접근성 분야의 주요 전문인력입니다. 행사를 위한 일회적 교류에 그치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정에서부터 통역사가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해 자문을 주고받는다면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자체의 접근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3) 프로그램 정보의 전달에 있어 고려할 점은?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모집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프로그램의 소식을 접하고 참여 문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수가 쉽게 볼 수 있는 오프라인 장소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하는 방식은 누군가에게는 접근이 어려운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온/오프라인 어딘가에 홍보물을 공유한 후 누군가가 신청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사자가 모이고 활동하는 곳을 찾아가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고 참여 안내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추가로 장애 관련 방송(TV/라디오)과 신문 등 언론매체도 있습니다. ‘복지TV WBC’, ‘KBS 제3라디오 방송’, ‘에이블뉴스 ABLENEWS’, ‘장애인신문 WELFARE NEWS’ 등이 대표적인 장애 관련 언론매체입니다. 이런 언론 홍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전달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등을 고려한다면 쉬운 표현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음성 해설로 웹 홍보물의 정보를 읽어주는 방식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전달과 홍보를 문화시설에서 바로 시행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번호나 메일주소 등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채널을 적극적으로 알려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를 받고 관련 내용을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교육 공간에 휠체어가 입장 가능한지 기본적인 정보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문자통역, 수어통역 등 준비 가능한 접근성 장치가 무엇인지를 사전 공지하는 것도 홍보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 ※ 2021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전시 연계 프로그램

[그림 5] 전시 <길은 너무나 길고 종이는 조그맣기 때문에>

연계 교육 프로그램 홍보물



전시 <길은 너무나 길고 종이는 조그맣기 때문에>  
연계 프로그램

스터디모임 : 그린다그린다그린다그린다그린다

요일일시 2021. 6. 30(수) ~ 8. 11(수)  
오류 1~4시 (총 7회)

요일장소 북서울미술관 B1 스튜디오 (481),  
온라인 Zoom회의 (38)

참가비 무료

참여대상 15세 이상 누구나

신청기간 2021. 5. 25 오류 3시  
~ 6. 7 저녁 11시

신청방법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 교육/행사 > 예정교육  
> 그린다그린다그린다그린다그린다  
> 구글 폼을 통해 신청하기  
문의사항 및 질문이 있다면  
> 객관오류 오류 채팅방 '유구리회실' (오류 시간 9-18시) > 참여자 확정

모집정원 5명

다양한  
신체, 욕구, 감각,  
시선, 표현 등은  
그 질문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모임은  
'그린다'에 대한  
일반화된 관점에  
대한 질문 위에서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 세상은  
가끔 '장애'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이 모임은 그보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기획 및  
모임진행 최선영 (유구리회실장)

문의 02) 2124-5273/5283

모임장여자 2021. 6. 17. 오류 2:00  
확정'발표일 (당첨자 개별 문자 발송)

\* 모임장소에는 휠체어 입장이 가능하며 필요시 문자 및 수화통역이  
필요시 문자 및 수화통역이 지원됩니다.

I·SEOUL·U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길은 너무나 길고 종이는 조그맣기 때문에>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모임 콘셉트의 활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홍보물에는 다음과 같이 접근성 관련 안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임 장소에는 휠체어 입장이 가능하며 필요시 문자 및 수화통역이 지원됩니다”

신청페이지에서는 문자 및 수화통역 등 접근성 지원 사항을 선택, 혹은 별도 작성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만들어 참여자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 라. 운영단계

### | [표 5] 운영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접근성 요소 |

가. 세부 프로그램 활동의 준비	<p>프로그램 운영 준비에서 체크 할 접근성 관련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p> <p>프로그램 운영 기간과 시간대의 접근성은 적당한가요?</p> <p>장애인의 다양한 참여 및 적응 속도를 고려하며 접근성 요소를 기획, 보완할 수 있는 범위로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설정하셨나요?</p> <p>장애인이 개별적으로 교육 장소까지 이동할 경우, 장애인 콜택시나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이 적은 시간대(출퇴근 시간대 제외 등)로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설정하셨나요?</p> <p>가능한 다양한 장애인이 참여해 체험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였나요? (예술장르, 표현도구의 선택)</p> <p>특히 활동,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다양한 참여자 사이 상호작용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졌나요?</p>
나. 교육자료, 표현도구와 장비	<p>참여자가 활용할 교재와 도구의 준비에 고려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p> <p>장애인의 신체나 표현 방식을 고려하여 표현 재료나 도구를 재기획하거나 준비하였나요?</p> <p>장애인이 기존에 있던 표현 도구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 장치나 보조 장비를 마련하였나요?</p> <p>장애인이 새로운 표현 방식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존 재료가 아닌 다른 재료나 도구를 제작하거나 시도하는 노력을 하였나요?</p>
다. 프로그램 현장에서의 관찰과 보완	<p>교육 프로그램 운영상황, 현장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p> <p>방문을 예상치 못한 장애인 참여희망자에 대한 현장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셨나요?</p> <p>교육장 현장의 의료사고 및 안전 위험 상황, 재난 대피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셨나요?</p> <p>조직 내부 및 시설의 안내인과 근무자들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내용이 공유되고 있나요?</p>

### 1)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접근성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 모두에게 편안한 내부 환경 조성

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내부 공간만을 중심으로 접근성을 살펴보자면 무엇보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개별 창작과 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에 따라 공간의 조건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만의 창작 세계에

집중하는 성향의 장애인이 다수 참여한다면 독립된 작업 공간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각자의 작업 테이블과 익숙한 재료들을 정리할 장소 등도 필요합니다. 또한 협업이 중요한 움직임·무용 프로그램이라면 넓고 탁 트인 공간, 움직임 중간에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적 여유, 그리고 음악을 적당한 울림으로 들을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조건의 공간을 구성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휴식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분위기를 고려하여 바닥에 편히 앉거나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혹은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편히 쉴 수 있는 독립된 자리나 테이블이 포함된 공간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도 장애인이 자신이 필요한 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시각장애인을 고려할 경우 가구나 물건의 위치를 자주 옮기기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조명의 버튼이나 구조물 등에는 점자 스티커를 부착해서 용도나 작동 방식을 안내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이동하며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 개별성을 존중하는 공간 구성의 사례\_뉴욕대학교(NYU) 도서관의 저감각 공간

[그림 6] 뉴욕대학교 도서관의 저감각 공간



©뉴욕대학교

뉴욕대학교는 2024년에 NYU 학생 접근성을 위한 모세 센터(Moses Center)와 NYU의 장애, 포용 및 접근성 실무그룹과 협력하여 밥스트 도서관의 1층 공간에 자폐증 스펙트럼 혹은 ADHD가 있거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불안과 같은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맞춤형 도서관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공간은 등받이가 높은 의자와 책상, 콩주머니 베개, 바닥용 요가 매트, 조절 가능한 조명 및 소음 제거 벽 패널 등 자유롭게 앉거나 누울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 참여자가 활용할 교재와 도구의 준비에 고려할 점은?

###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

앞서 ‘예술장르에 따른 장애인 예술교육’ 부분에서 다루었듯 다양한 예술장르에 따라 도구나 장비들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교육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표현 재료나 도구, 장비들은 비장애인의 신체나 표현 방식에 맞춰 제작된 것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클래식 악기, 미술 도구 등도 비장애인의 연주나 미술 활동을 전제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예술교육 접근성을 고려할 때 표현 재료나 도구를 장애인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의 방향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표현 재료나 장비에 보조장치를 연결하여 기존 표현 방식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활동에서 손가락 여러 개를 이용해 붓을 안정적으로 잡기 어려운 장애인을 고려해 붓의 막대 부분에 손잡이를 만들어 부착할 수 있습니다. 손이 아닌 입으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경우, 고개를 숙이고 그리는 것보다 들고 그리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책상이 아닌 이젤이나 화판에 종이를 부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의 신체 조건이나 표현 욕구 등을 고려해 새로운 재료나 도구를 기획,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전제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여러 표현 도구 개발 및 제작 관련 예술적이고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022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발달장애인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문자연어 프로그램 연구개발<sup>8</sup>

쓰는 행위에 바탕을 둔 표현 도구

글자를 익히거나 문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닌 문자 요소나 쓰는 행위를 바탕으로 표현 활동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김지영 예술가가 연구, 개발하였습니다.

**평면 글자 블록** : 그림과 글자 사이 지점의 표현을 즐길 수 있는 교구로 납작 나무판으로 제작되었고 자음 59개, 모음 18개, 문장부호 1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글자를 손으로 만져보며 형태를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자음과 모음의 조합에 따라 달라지는 글자의 형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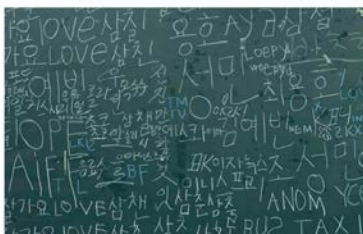
[그림 7] 평면 글자 블록





**입체 글자 블록 :** 쓰는 행위에 표현(글자 쓰기)과 행동(쌓아 올리기)이 맞물려 일어날 수 있도록 고안된 글자 블록으로 원하는 글자를 쓰고 해당 블록을 겹겹이 쌓아 올리며 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0x10x5cm 정도의 나무 블록 30개로 구성되어 있다. 소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적당히 손안에 질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림 8] 입체 글자 블록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3) 교육 프로그램 운영상황, 현장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 관찰과 보완의 지속

접근성을 고려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매개자의 역할도 논의했음에도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변수가 발생합니다. 교육 대상마다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필요로 하는 접근성 요소가 생길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그 단계에 따라 변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던 차시에는 교육 대상의 필요에 따라 문자나 수어통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기 해석의 다양성, 실험성이 중요해지면 자세한 설명 대신 직관적이고 개별적인 내용 이해가 필요할 수 있고 기획 의도에 따라서 과감하게 기존 문자나 수어 통역을 없애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에는 교육 대상이 자유롭게 표현 도구나 요소를 선택하도록 매개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 대상의 개별성, 현장 상황의 불확정성을 전제할 때 지속적으로 현장과 교육 대상의 반응을 관찰하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외에 매번 새로운 상황을 살피며 접근성을 포함한 교육 방법론의 수정, 보완할 또 다른 매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장애인 예술교육이 갖는 반응적 기획의 가능성과 의미를 공감하는 인력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현실성 있는 접근성 장치를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마. 성과 환류 및 평가 단계

### | [표 6] 성과 환류 및 평가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접근성 요소 |

가. 참여자의 감상과 피드백의 수집/ 기록	프로그램 운영 기록을 어떤 식으로 남겨야 할까요? 교육 프로그램 중의 결과물과 참여자 감상에 대한 수집 보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나. 설문조사 방식의 다양화	피드백의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프로그램 종료 후 성과나 의미를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장치를 기획하였나요? 온/오프라인 설문 등을 통해 교육 대상의 참여 소감 등을 수집할 경우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문 방식을 다양하게 기획하였나요?

#### 1) 프로그램 운영 기록을 어떤 식으로 남겨야 할까요?

##### 장애인 등 주요 대상자 중심의 피드백 수집

예술교육은 프로그램 종료 후 성과나 의미를 되짚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교육 대상의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참여 인원수를 성과로 측정합니다. 이러한 일반적 방식 외에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접근할 수 있는 성과 환류 및 평가 방식도 모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중심의 접근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언어 표현이 어렵거나 온/오프라인 설문지 작성이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이때 보호자나 관계자가 장애인의 표정이나 반응을 근거로 대신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장애인 당사자가 질문에 접근할 기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 시도해봐야 합니다.

#### 2) 피드백의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 설문조사 방식의 다양화

단순한 의사 표현만 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제시된 몇 가지의 답변 중 자신의 의견을 중심으로 답변을 선택할 수 있는 설문 방식을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쉬운 표현을 바탕으로 소통을 해야 하는 발달장애인에겐 일반적인 설문지 질문 대신 간단하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으며 답변을 그림에 대한 선택으로 대체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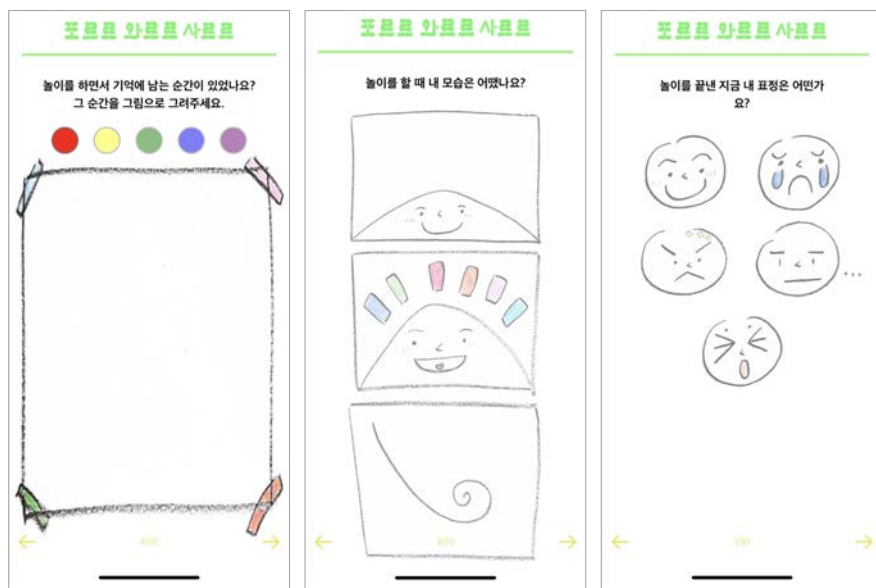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 지원이 되는 설문 방식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인쇄물로 된 설문지도 점자 인쇄물로 만들거나 매개자와의 1:1 대화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경기문화재단 ‘2021 경기 장애아동 가족 예술교육 프로젝트 <포르르와르르사르르>’의 사전 신청서 사례

앞서 사례로 설명된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포르르와르르사르르’의 프로젝트 종료 후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설문조사를  
시도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설문의 유형을 벗어나 모두가 문항에 답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설문조사를 만들었고 모바일용 참여형(인터랙션) 놀이 방식으로 설문을  
기획, 진행하였습니다.

[그림 9] <포르르와르르사르르> 설문조사 모바일 페이지



©기획 예술가 최선영 제공







## 5. 사례연구

### 가. 전시시설의 교육 프로그램

#### 터치 투어

[그림 10] 터치 투어



©'Making Art Accessible for All' 뉴욕타임즈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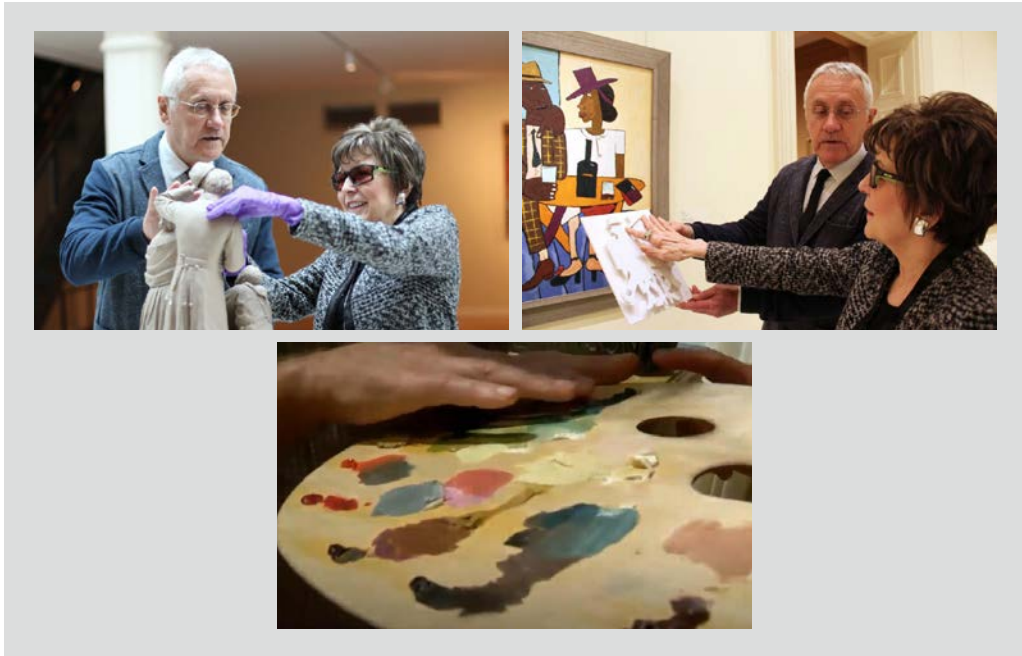
시각 장애가 있거나 시력이 낮은 방문객을 위한 터치 투어는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 1990년대를 포함해 50년 넘게 제공되어 왔습니다.

9. <https://www.nytimes.com/2023/04/25/arts/design/museum-accessibility.html>

## 작품감상을 돕는 프로그램

### 1-1. 미국, 스미스소니언 미국 미술관의 Verbal Description Tour

[그림 11] 스미스소니언 미국 미술관, 'Verbal Description Tour'



©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

**개요** 미국의 스미스소니언은 접근성에 대한 다양한 시도 등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스미스소니언 미국 미술관에서 소규모의 시각 장애 및 저시력자를 위한 이야기가 있는 도슨트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 Verbal Description Tour (구두 설명 및 감각 투어)

- 시각 장애가 있거나 시력이 낮은 방문객을 위해 도슨트가 진행하는 소규모의 그룹 투어로 작품에 대한 미술사적 의미, 작가가 표현한 작품 의도, 미학적 해석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기존의 도슨트 투어와 달리 눈이 보이지 않는 방문객을 위해 작품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작품에 대한 도슨트의 해석과 감상을 섞어 설명합니다.
- 작품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색감이 사용되었고, 어떤 분위기이며 작품 속 주인공은 어떤 기분인 것 같은지 등 작품 속 상황을 이야기하듯 설명해 주며 사물이나 폼보드 등으로 간단하게 만든 입체화로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설명을 듣거나, 작품과 관련된 혹은 상상할 수 있는 음악이나 소리, 향 등을 제공하여 다양한 감각으로 감상할 수 있게 합니다.



- 투어 참여자들은 도슨트와 함께 서로의 감상을 나누며 더욱 입체적인 감상의 경험을 얻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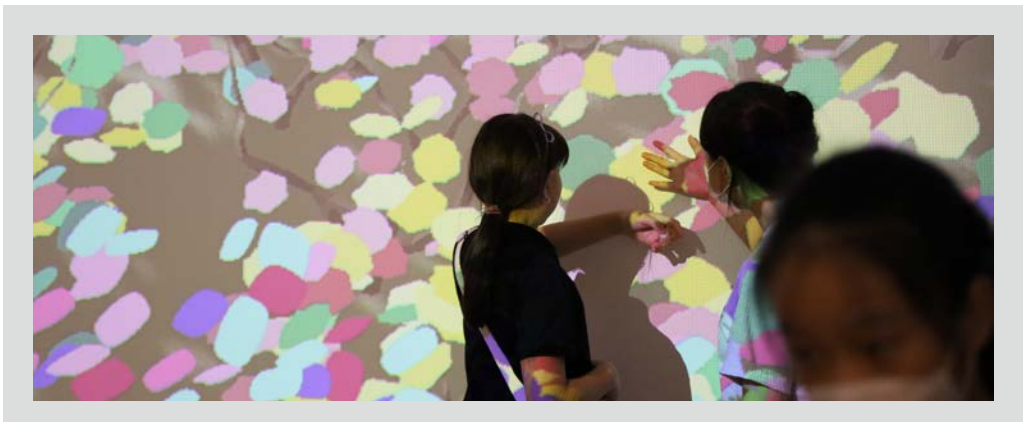
**참고** 스미스소니언 미국 미술관 Verbal Description Tour 프로그램 홈페이지  
 — <https://americanart.si.edu/education/adult/verbal-description-tours>

Verbal Description 작성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

- <https://www.artbeyondsight.org/mei/verbal-description-training/writing-verbal-description-for-audio-guides/>
- [https://moodle2.units.it/pluginfile.php/556128/mod\\_resource/content/3/Giansante%202015%20Writing-for-Audio-Guides-short.pdf](https://moodle2.units.it/pluginfile.php/556128/mod_resource/content/3/Giansante%202015%20Writing-for-Audio-Guides-short.pdf)

## 1-2. 환기미술관의 시각장애인 감상 프로그램 ‘감각 프로젝트’

[그림 12] 환기미술관, ‘감각 프로젝트’



©(재)환기재단·환기미술관

**개요**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감각 프로젝트’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감상 프로그램으로 후각, 청각, 촉각과 같은 다양한 감각을 통해 작품을 감상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 되었습니다.

**내용** 시각장애인 감상 프로그램 ‘감각 프로젝트’

- ‘감각 프로젝트’는 2023년 박물관·미술관 주간 ‘함께 만드는 뮤지엄’ 공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환기미술관의 배리어프리 전시 《하나를 향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뮤지엄 가이드》의 연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시 관람을 원하는 시각장애인 누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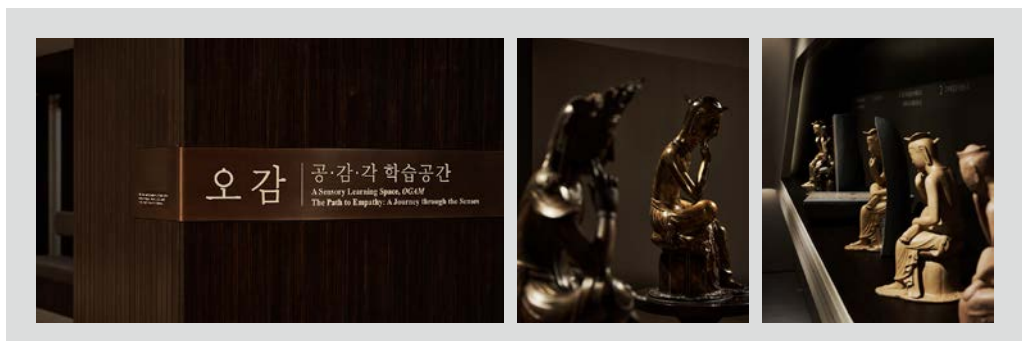
참여가 가능하며, 주요 활동으로는 ‘손끝으로 느껴보는 작품’, ‘후각으로 맡아보는 작품’, ‘소리와 이야기로 들어보는 작품’ 등 후각, 청각, 촉각과 같은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 작품을 감상하고 이와 연계된 창작 활동을 진행합니다.

**참고** 환기미술관 ‘감각 프로젝트’ 안내 홈페이지

— <http://whankimuseum.org/exhibition-programs/시각-장애인-감상-프로그램>

### 1-3. [감상] 국립중앙박물관 ‘공간 오감’

[그림 13] 공간 오감 입구와 촉각체험자료 반가사유상



©국립중앙박물관

**개요** 국립중앙박물관은 ‘모두를 위한 박물관’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플랫폼 ‘모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박물관 학습공간 ‘오감’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물리적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박물관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전시 관람 환경, 교육 참여 환경, 디지털 이용 환경, 시설 편의 환경 등 분야에서 전반적인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프로 그램 개요** 국립중앙박물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다양한 감각 활동으로 박물관 문화유산을 경험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공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새로운 ‘전시 학습 공간’인 ‘공간 오감’을 설계하여 첫 번째 주제로 ‘여기, 우리, 반가사유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반가사유상’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주요 대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서 다중감각(촉각 작품 및 향기 등)을

활용한 입체적 감상 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체험활동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시각장애인 포함 누구나, 회당 8명

일시: 매주 화·토요일(공휴일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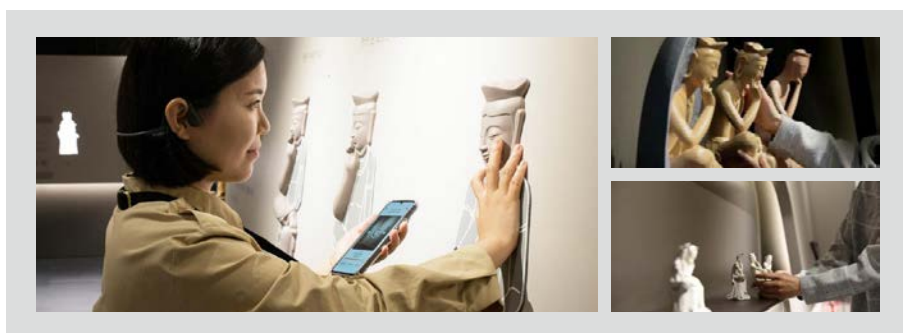
- (1회차) 10:00~11:30,
- (2회차) 14:00~15:30 / 회당 약 90분 소요
- 인솔 지도 인력 2인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1층 '공간 오감'

**내용** 교육강사의 사전안내 세션을 통해 촉지도로 교육장 내부 동선 파악한 후 제공되는 오디오가이드용 이어폰과 타블렛을 착용, 4인이 한 조가 되어 강사의 안내에 따라 교육장 안으로 이동하며 비시각장애인이 참여하는 경우 시각 차단 안경 착용하여 시각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청동 주물 제작과정의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촉각 작품 체험과 6세기와 7세기 각 반가사유상의 특징을 기반으로 조향한 향기를 해설을 들으며 맡아보고, 해설과 연관된 사운드아트 작품을 들어보는 순으로 진행되며, 시각보다 촉각과 후각 그리고 청각을 사용하여 감상합니다.

[그림 14] 공간 오감 촉각 작품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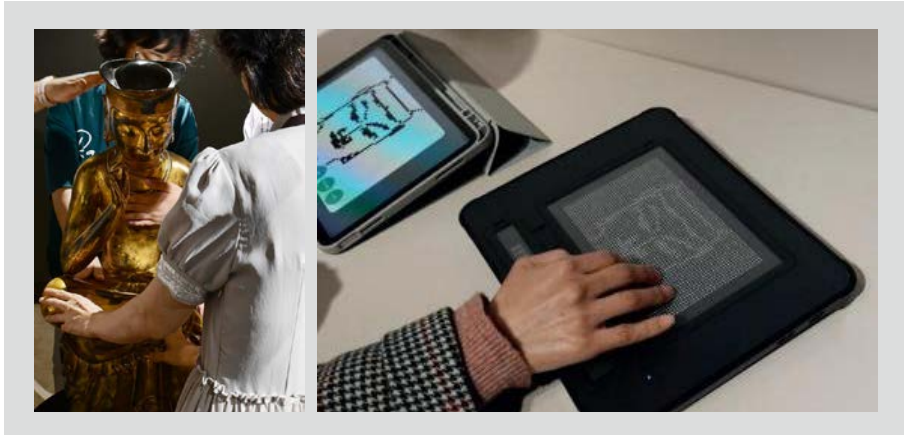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이후 참여자들은 실물 크기 반가사유상을 직접 만져보면서 각자가 느낀 촉감을 기반으로 반가사유상의 형태에 대한 상상과 감상을 참여자들 사이 대화로 나눕니다.

디지털 그림을 촉각으로 바꾸어 주는 시각장애이용 타블렛을 통해 감상을 그림으로 그리고 상대의 그림을 촉각으로 감상하며 그 느낌과 생각을 나눕니다.

[그림 15] 공간 오감 시각장애인용 타블렛



©국립중앙박물관

**참고** 시각장애인 유튜버 김한솔(원샷한솔)과 함께한 국립중앙박물관  
'공간오감' 전시 투어 소개영상  
— <https://youtu.be/e-HQbsqSK2o>

## 1-4. 서울시립미술관 ‘찾아오는 퍼블릭 프로그램’

[그림 16] 서울시립미술관,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갤러리 토크 이야기의 모양’ 동영상 콘텐츠



©서울시립미술관

**내용** 2020년부터 시작된 <찾아오는 퍼블릭 프로그램>은 기존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을 개선한 프로그램으로 잠재된 관람객을 미술관에 초대해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 연결점을 만들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배움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례 연구** 소셜뷰잉(social viewing)은 미학자 이토 아사 창안, 여러 명이 대화를 나누며 작품을 감상하고 그 감상을 주도하는 것이 시각장애인이 되는 감상 프로그램 방법론입니다. 시립미술관의 관계 중심 교육 연구 및 ‘찾아오는 퍼블릭 프로그램’ 개발 중 주요 방법론으로 차용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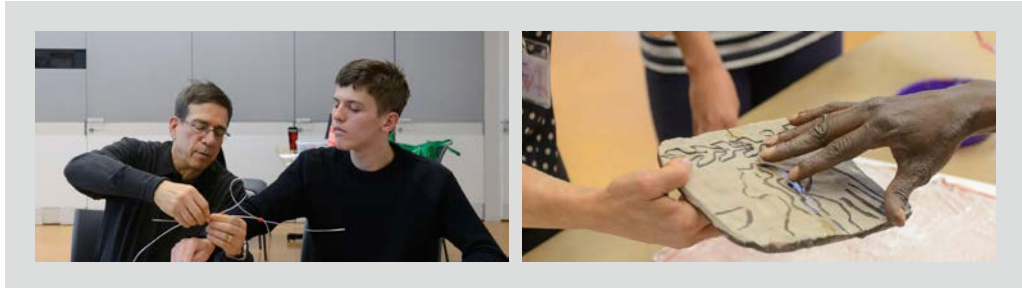
**참고**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갤러리 토크 이야기의 모양>  
 — <https://youtu.be/hWUnJ30Gmpw?si=2h1RwqbjzgY3g1Xy>  
 —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각자 마음에 그린 이야기의 모양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

## 예술 활동/참여 프로그램

### 2-1. 미국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접근성(Access) 프로그램

[그림 17]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Discoveries 교육 현장

[그림 18]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Seeing Through Drawing 교육 현장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개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개인의 요구와 관심에 맞춘 다양한 접근성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자기나 조각과 같은 3D 예술형식에 초점을 맞춘 미술 워크숍은 많으나 2D 미술 워크숍은 없다는 관객 피드백에서 착안해 다양한 예술 창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 Seeing Through Drawing(그림을 통해 보기)

- 시각장애인이거나 저시력자를 위한 미술 워크숍으로 미술관의 다양한 작품들에 영감을 받고 여러 가지 드로잉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활동은 한 손으로는 물체를 느끼고 다른 한 손으로는 느끼며 그리기, 질감이 있는 재료와 전통적인 드로잉 재료를 혼합한 드로잉 등을 포함합니다.
- 참가자들이 다양한 작품과 재료, 접근 방식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보다는 예술 창작활동이나 다양한 매체를 경험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Discoveries(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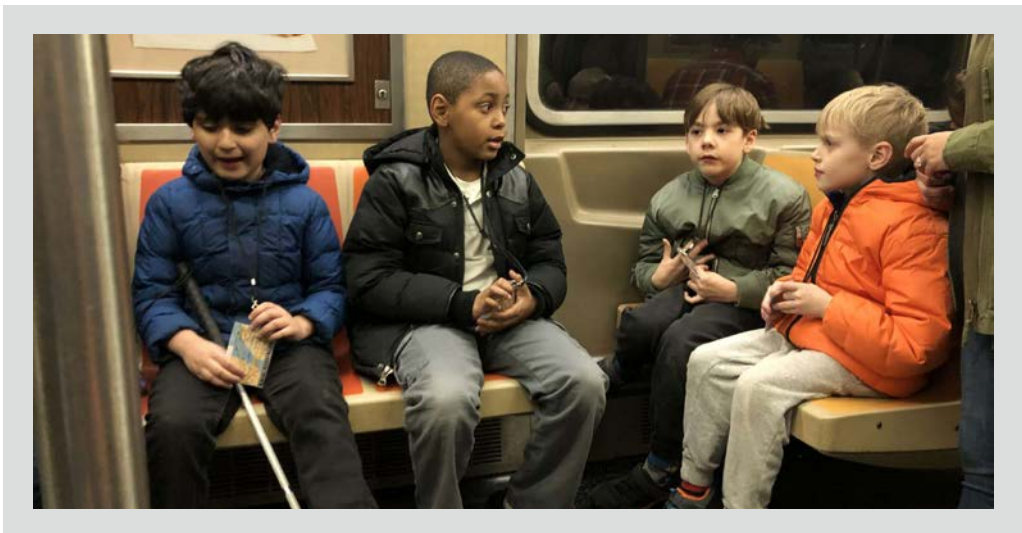
-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거나, 학습, 발달장애가 있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후각과 촉각 등 감각을 활용한 다양한 주제의 예술창작 활동이 이뤄집니다. 참가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가족, 친구의 참여가 권장됩니다.



- 참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시각장애인/저시력자를 위한  
 Seeing Through Drawing 프로그램  
 — <https://www.metmuseum.org/events/programs/access/visitors-who-are-blind-or-partially-sighted>
- 학습 장애/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참여자를 위한 Discoveries 프로그램  
 — <https://www.metmuseum.org/events/programs/met-creates/visitors-disabilities/discoveries>
- 접근성 관련 안내 브로셔  
 — [https://www.metmuseum.org/-/media/files/events/programs/progs-for-visitors-with-disabilities/accesscalendar.pdf?sc\\_lang=en&hash=937E8FD53A0D6E0B20D712401BE538E4](https://www.metmuseum.org/-/media/files/events/programs/progs-for-visitors-with-disabilities/accesscalendar.pdf?sc_lang=en&hash=937E8FD53A0D6E0B20D712401BE538E4)

## 2-2. 뉴욕 교통박물관의 Subway Sleuths(지하철 탐정)

[그림 19] 뉴욕 교통박물관, Subway Sleuths 교육 현장



©New York Transit Museum

- 개요** Subway Sleuths(지하철 탐정)은 교통박물관에서 진행되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10주간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 내용

자폐가 있는 학생들은 규칙적 형태를 보인 교통 시스템에 흥미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지하철 탐정 프로그램’은 자폐 학생 학부모와 연구자, 언어치료자가 함께 기획한 지하철에 대한 높은 흥미를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특수교사, 언어치료사, 박물관 교육 담당자와 함께 학생들은 대중교통과 관련된 박물관의 컬렉션과 콘텐츠를 탐색하고 창작활동, 게임, 움직임 놀이에 참여합니다.

강점 기반의 교육 활동으로써 학생들의 자신감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주며,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 후원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초창기에 프로그램을 기획한 전문가들과 꾸준히 교류하고 정기적인 연수를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 참고

뉴욕 교통박물관의 지하철 탐정 프로그램

— <https://www.nytransitmuseum.org/learn/subwaysleuths/>



## 2-3 [감상+활동] 리움미술관 접근성 프로그램 감각 너머 워크숍 시리즈 (2022-2024)

**전체 개요** 리움미술관의 ‘감각 너머’ 프로그램은 ‘접근성’에 대한 예술적 접근 방식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접근성이란 모든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는 말로, 사회적 포용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각 너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을 넘어 신체적 차이가 아닌 몸의 고유한 감각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관객을 만나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나아가 물리적 공간 차원을 넘어서 전시공간을 어떻게 예술적 활동으로 경험하고 감각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1년 청각장애 어린이 대상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청각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딩과 AI를 활용해 작품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는 <Worlding> 워크숍을 진행했고, 청각장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미술과 현대미술 주요 작품을 감상하고 태블릿PC와 움직임으로 표현한 <이상한 행성, 새로운 만남>, <구름 산책하기> 프로그램이 8회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청각장애 대상뿐만 아니라 시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그리고 비장애인까지 포괄하는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공간과 감각’이라는 주제 아래 공간의 개념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4개의 접근성 프로그램 <작품 속으로 들어간 우리>, <함께 만드는 미술관>, <타인의 공간>, <감각 풍경, 공간의 울림>이 13회 진행되었으며 어린이, 미술관 관계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약 2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한 해 동안 하나의 흐름 안에서 워크숍과 같이 직접 몸을 움직이는 활동뿐만 아니라 포럼, 출판에 이르기까지 형식을 다양화하여 서로 다른 경험과 감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4년의 주제는 ‘언어’입니다. 장애를 하나의 언어로 바라보며, 그 번역의 가능성을 탐색보려 합니다. 특히 몸을 매개로 표현하는 예술 장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다양한 감각 경험과 공통 언어를 탐구하려고 합니다.

## 감각 너머 2023 워크숍 <감각 풍경, 공간의 울림>

[그림 20] 리움미술관, [2023 감각 너머] 감각 풍경, 공간의 울림 워크숍 사진



©리움미술관

**프로**      일시: 2023년 9월 15일(금)-16일(토)  
**그램**      — 오전반: 10:00-13:00  
**개요**      — 오후반: 15:00-18:00

**대상:** 청소년 이상 청각, 지체, 뇌병변 장애인/ 비장애인, 반당 20명  
**진행:** 노경애(안무가), 해미 클레멘세비츠(Remi Klemensiewicz, 사운드 아티스트)  
**장소:** 리움미술관 M2 2층(현대미술실)

**내용**      <감각 풍경, 공간의 울림> 워크숍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가들과 함께 미술관 공간을 시각과 청각의 관점에서 몸으로 탐험하며 다양한 감각의 풍경을 만들어내는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자들은 여러 형태의 경계로 이루어진 공간을 몸으로 채우고 비우고, 또 그리면서 자신이 느끼는 ‘공간’을 움직임으로 형상화했습니다. 또한, 소리와 진동을 통해 각자의 주파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울림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 [1차 워크숍] 시각 공간 탐험

노경애 안무가와 함께한 이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경계에 의해 나타나는 시각적 형상을 몸의 움직임에 통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을 활용해 각자만의 공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그 공간 속에서 몸을 움직이며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미술관에서 만난 다양한 참여자들은 각자의 독특한 감각을 통해 공간을 유영하듯 공유하고 만나며, 몸과 몸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움직임을 통해 감각하였습니다.

#### [2차 워크숍] 청각 공간 탐험

사운드 아티스트 해미 클레멘세비츠와 함께한 이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소리와 진동이 공간을 어떻게 채우고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신시사이저를 활용해 공간과 나의 관계에 따라 변화하는 주파수를 청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진동 등을 몸으로 느끼며 따라가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몸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소리와 진동을 느끼고, 소리가 형성한 공간을 몸의 동작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과 청각으로 경험한 워크숍 활동을 바탕으로 조별로 정한 공간에서 움직임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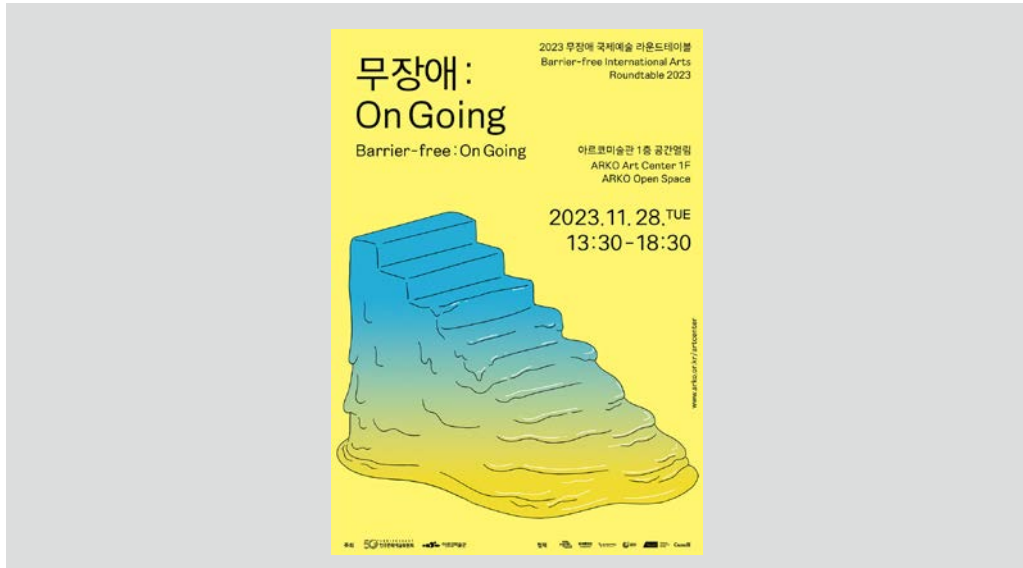
#### 참고

<감각 풍경, 공간의 울림> 워크숍 프로그램 소개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jXn-0DKL9v0&list=PLlTXGwNQozOfVcH7KCJB5DtFEp97LH7FG&index=1>

## 3-1. 아르코미술관의 무장애 국제예술 라운드테이블: 무장애: On Going

[그림 21] 아르코미술관, 2023 무장애 국제예술 라운드테이블 포스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개요** 아르코미술관에서 진행한 무장애 국제예술 라운드테이블 ‘무장애: On Going’은 배리어프리 창작활동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창작 환경조성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습니다.

**내용** 장애 예술인, 전시 기획자, 기관 관계자 등 다분야의 연사들이 참여해 장애 예술인 창작지원 현황과 과제, 장애 예술 기획전 경험, 장애 예술인의 해외 독립과 창작, 장애·비장애 예술인 협업과 창작공간 운영 사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예술계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한-영 동시통역, 수어 통역, 실시간 문자통역을 제공하며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한국, 독일,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시각에서 장애 예술과 배리어프리 창작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의 접근성과 포용성에 대한 교류와 학습이 이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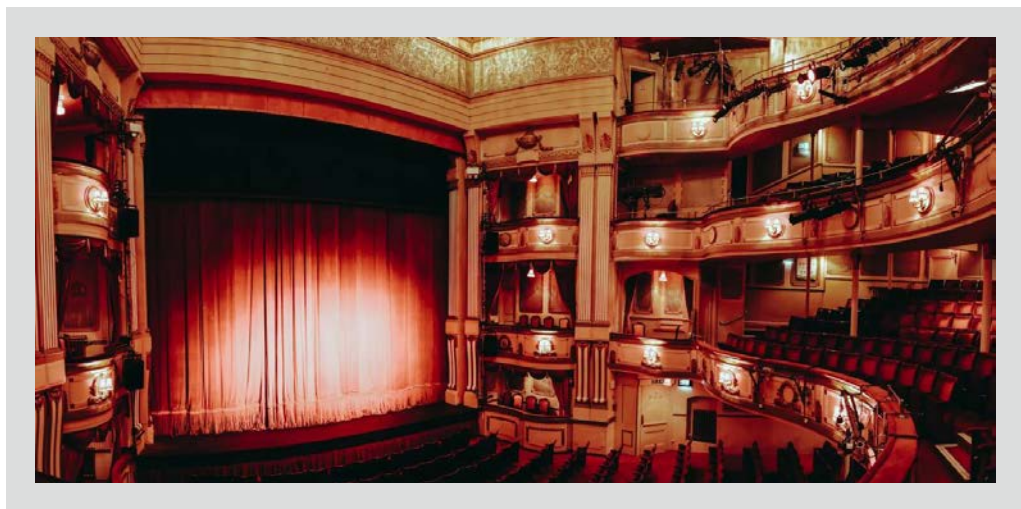
- 참고** 2023 무장애 국제예술 라운드테이블 홈페이지  
 — <http://www.prism-for-all.art/round-table/2023-mujangae-gukjeyesul-ra-undeuteibeul?token=f8dd94435560afb676e2f0202433da76779c9205>

## 나. 공연시설의 교육 프로그램

### 작품감상을 돕는 프로그램

#### 1-1. 영국 Newcastle Theatre Royal의 접근성(Access) 프로그램

[그림 22] 영국 Newcastle Theatre Royal



©Newcastle Theatre Royal

**개요** 로열 극장은 극장 시설 이용을 위해 자막, 오디오 설명 및 보조견 서비스, 대형 인쇄물, 전용 터치 투어 등 다양한 접근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용** Audio Described Performances (오디오 설명 공연)  
 — 시각장애인, 저시력자를 위해 공연의 시각적 요소에 대한 실시간 구두 해설을 제공하여, 무대 상의 행동, 세트 디자인, 표정, 시각적 농담 등을 설명합니다.

**Captioned Performances (자막 공연)**

- 배우의 대사, 캐릭터 이름, 사운드 이펙트 및 무대 뒤 소음 등을 문자로 변환해 객석 옆의 자막 장치에 표시합니다.

**Touch Tours (터치 투어)**

- 장애인 관객을 위해 공연 전에 무대, 세트 및 공연의 물리적 요소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뉴캐슬 극장 직원들과 함께 무대를 둘러보며 소품, 의상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고 제작사 직원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BSL 통역 공연 (BSL Interpreted Performances)**

- 공연 중 무대에서 배우들이 말하거나 노래하는 것을 수화로 통역합니다. 통역사는 관객이 통역사와 공연을 모두 볼 수 있도록 무대 한쪽 앞에 위치합니다.

**릴렉스 공연 (Relaxed Performances)**

- 더 편안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 모든 극장 관람객을 위해 디자인된 공연입니다. 해당 공연에서는 객석에서의 소음과 움직임을 허용하며, 필요시 재입장이 가능하고, 쇼 도중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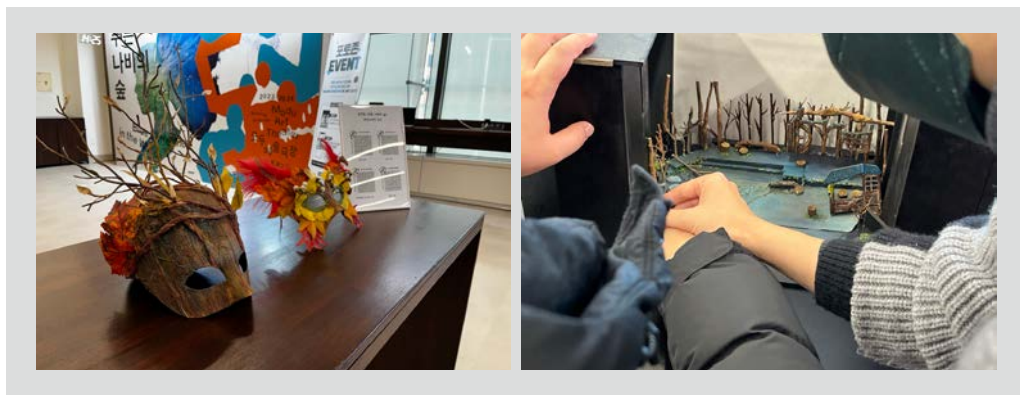
**참고****영국 로열 극장의 접근성 프로그램 홈페이지**

- <https://www.theatreroyal.co.uk/plan-your-visit/access-information/>



## 1-2. 모두예술극장의 접근성(Access)프로그램

[그림 23] 모두예술극장 접근성 데스크, 무대모형



©메타기획컨설팅

**개요** 모두예술극장의 접근성 프로그램은 다양한 장애를 가진 관객들이 공연을 보다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관객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용** 터치투어

- 시각장애인 예매 관객 1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연 시작 전 음성해설가와 함께 무대세트, 소품 등을 직접 만져보며 공연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투어 당일 극장 로비에서 만나 음성해설사와 함께 극장으로 입장하며 약 30분간 진행됩니다.

접근성 제공 사항

- 공연 중에는 휠체어석, 한국 수어 통역, 음성해설, 한글 자막 등이 제공되며, 그 외 시간에는 안내 보행 로비 내 문자소통 및 수어통역 등이 제공됩니다.
- 공연 기간 중에는 접근성 매니저가 극장 로비에 상주하며, 사전 이동지원 및 극장 이용 전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참고** 모두의 예술극장 접근성 프로그램 홈페이지

- <https://www.moduarttheater.or.kr/product/performance/252811>

## 예술 활동/참여 프로그램

### 2-1. 미국 매스니 의료&교육센터의 Arts Access 프로그램

[그림 24] 미국 매스니 의료&교육센터의 Arts Access 프로그램



©Matheny Medical & Educational Center

- 개요** Arts Access Program(APP)는 1993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각, 문학, 공연예술 예술창작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 내용** APP는 퍼실리테이터라고 불리는 전문예술인이 중증장애인을 대신해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성을 표현합니다. 퍼실리테이터는 요구를 수행하는 단순한 대리자가 아닌, 매개자로서 참여자를 리드하고, 교감하며 영감을 주고받습니다.

#### DRAMA (연극 프로그램)

- 연극의 기본 요소인 배우, 움직임, 대본, 연출을 활용해 자신만의 연극을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참가자는 연출가, 배우, 작가 중에서 역할을 택하고, 그에 따라 감독, 연기, 집필 등의 작업 활동을 수행합니다.

#### Choreography (안무 프로그램)

- 전문 무용 지도자 및 무용수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신만의 안무를 창작하고 공연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활용해 소통하고, 다양한 무용 동작을 선택해 자신만의 독특한 무용작품을 창작할 수 있습니다.

#### Creative Movement (창조적 움직임 프로그램)

- 춤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룹 기반의 프로그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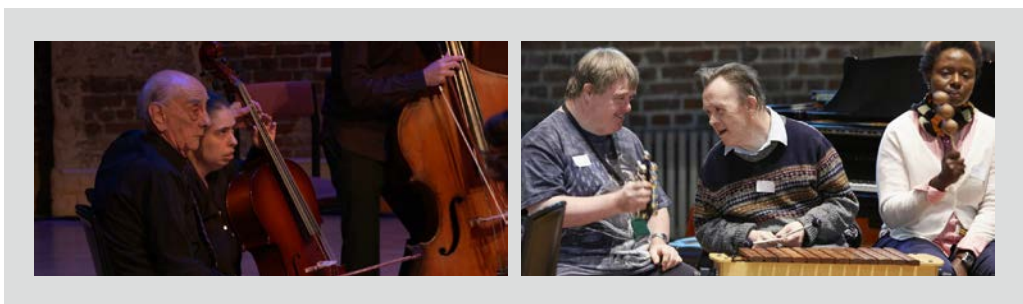


참가자들은 발레, 모던댄스 등 여러 무용의 형태와 빙상 스케이팅을 경험하며 무용 예술에 대한 이해와 감상력을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빙상 스케이팅의 모방, 원숭이의 움직임 등 다양한 신체 활동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 예술 접근성 프로그램 홈페이지  
— <https://artsaccessprogram.org/programs/>

## 2-2. 영국 LSO(London Symphony Orchestra)의 Create Monday Club

[그림 25] 영국 LSO(London Symphony Orchestra)의 Create Monday Club



©London Symphony Orchestra

예술교육

**개요** Create Monday Club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신경다양성 성인을 대상으로 한 창의적 음악 워크숍입니다.

**내용** Create Monday Club 음악 워크숍은 매월 1회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하며, 장애인, 신경다양인 성인과 보호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워크숍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참여자의 다양한 경험에 영감을 받아 이뤄집니다. 참가자들은 LSO 연주자들과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작곡, 즉흥 연주, 음악 창작을 합니다.

참여희망자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가끔 진행되며, 매년 일부 참여자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합니다.

**참고** Create Monday Club 안내 홈페이지  
— <https://www.lso.co.uk/learn-and-discover/inclusive-activities/create-monday-club/>

## 2-3. 미국 SAY(The Stuttering Association for the Young)의 Confident Voices

[그림 26] 미국 SAY의 Confident Voices



©The Stuttering Association for the Young

**개요** 미국 SAY(The Stuttering Association for the Young)는 언어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하는 국가 비영리 단체로 ‘Confident Voices’라는 언어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뮤지컬 창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내용** Confident Voices

- 어린이와 청소년(8세-18세)을 대상으로 하며 예술가와 전문 뮤지컬 제작자가 멘토로 참여해 음악, 시각예술, 무용, 시, 창의적 글쓰기 등을 비롯한 뮤지컬 창작부터 시연까지 참여합니다.
-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감을 키우고,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며 다른 청소년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Confident Voices의 홈페이지

- <https://www.say.org/programs/confidentvoices/>

## 2-4. 스위스의 Theater Hora(극단 호라)

[그림 27] 스위스의 Theater Hora(극단 호라)



©스위스 Theater Hora

**개요** Theater Hora(극단 호라)는 1993년 연극 교육자 Michael Elber(미하엘 엘버)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장애를 가진 이들의 창의성과 예술적 재능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내용** 극단 호라는 스위스에서 유일하게 양상블 단원 모두가 장애를 가진 전문 극단입니다. 배우로 하여금 전문적인 연기와 기타 예술 활동(예: 시각 및 비유적 창작물, 의상 및 가면 제작, 음악 등)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창립 이래 50개 이상의 프로덕션과 창립 예술 감독 미하엘 엘버(Michael Elber)가 이끄는 프로젝트, 패션쇼 ‘Drehum: La Mode folie’, 프랑스 안무가 제롬 벨(Jérôme Bel)과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작품 ‘모두를 위한 춤(Disabled Theater)’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개성과 독창적인 세계관을 드러내고, 자신의 개성이 무대에서는 장점이라는 확신과 성취의 즐거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고** 극단 호라의 홈페이지  
— <https://hora.ch/en/hora-intro/>

## 2-5. 미국 VSA, Kennedy center for performing arts

[그림 28] 미국 VSA 프로그램



©Kennedy center for performing arts

**내용** 케네디공연예술센터 VSA는 1974년 설립되어 현재 전 세계 장애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예술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700만 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등의 VSA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VSA의 프로그램으로는 VSA 국제 미술 프로그램(International Art Program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VSA 신진예술가 프로그램(Emerging Young Artists), VSA 극작가 발견 프로그램(Playwriter Discovery Program), 그리고 국제 청년 솔로리스트 어워드(International Young Soloist Award) 등이 있습니다.

VSA는 특히 국외 및 아시아 지역의 청년 장애 예술가들을 발굴,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 장애 예술가들이 서로의 작업을 확인하고 여러 방식의 작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 케네디공연예술센터 VSA 홈페이지  
— <https://www.kennedy-center.org/education/vsa/>



## 2-6. 영국 Southbank Centre Youth Voices

[그림 29] 영국 Southbank Centre Youth Voices



©Southbank Centre

**내용** 유스보이스 프로그램은 10세에서 18세 사이의 장애 유무나 음악 경험 등의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매주 수요일(총 10회)에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오디션을 보거나 악보 읽는 법을 알 필요는 없으며 단지 두 명의 전문 보컬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훈련 같은 것으로 시작하여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즐기며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배우고 만드는 방법 등을 경험합니다.

음악적 소양뿐 아니라 새로운 심리적 해소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통한 사회적 영역 확대 등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합창단으로 발전하여 서로 간의 연습을 봐주고, 합창단의 이름을 만들고, 공연을 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음악 기술과 영역을 발견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

[그림 30]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점자 악보

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Siloom Center  
For the Blind  
Music Rehabilitation Center for the Blind

한국어 | English | Chinese | Japanese

센터 소개 | 점자의 이해 | 점자악보 | 점자악보신청 | 강의실 | 드림이예술단 | 커뮤니티 | 후원하기

점자악보

점자악보  
성악(보컬)  
건반악기  
관악기  
타악기  
합창악기  
국악기  
소규모  
교본/교재  
교양도서

점자악보

전체

번호	장르	악기	제목	출판사	날짜	페이지
공지	-	공지	음악재활센터 점자악보 목록(2024. 1. 10 업데이트)	-	2018-06-22	262
공지	-	교본/교재	음악점자 설명서	-	2018-10-18	190
3733	클래식	현악기	Dont-24 Etudes and Caprices Opus 35 for Violin Solo	DONT	2024-01-10	2
3732	대중음악	건반악기	하얀 꽃들 꽃들 타보	이백자 작사, 김영한 작곡	2024-01-10	4
3731	대중음악	성악(보컬)	빛방울 왈츠	한문선 작사, 김영한 작곡	2024-01-10	2
3730	대중음악	건반악기	Pure Imagination	Bill Charlap Version	2024-01-10	4
3729	대중음악	건반악기	Billie's Bounce	Charlie Parker	2024-01-10	5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

## 내용 점자 악보 파일 지원

- 2012년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는 전문적인 음악 재활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재활 의지와 자신감을 회복하여 사회 통합을 조성함은 물론 잠재된 음악적 재능을 발굴, 양성하고 전문 음악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음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특히 클래식 음악 관련 점자 악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각장애인이 음악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 참고 센터 홈페이지

- <https://www.musicbraille.org>







## 6. 장애인 예술교육에서의 접근성 관련 체크리스트

Ⅱ [표 7] 장애인 예술교육에서의 접근성 관련 체크리스트 Ⅱ

분류	체크리스트	응답
규모	장애인의 개별성을 충분히 살피며 접근성 요소를 기획, 보완할 수 있는 규모로 교육 대상의 인원을 설정하셨나요?	
	강사 및 보조인력을 포함한 프로그램 운영자 대비 교육 대상의 인원수를 1:4 이하로 설정하셨나요?	
기간 및 시간	장애인의 다양한 참여 및 적응 속도를 고려하며 접근성 요소를 기획, 보완할 수 있는 범위로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설정하셨나요?	
	장애인이 개별적으로 교육 장소까지 이동할 경우, 장애인 콜택시나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이 적은 시간대(출퇴근 시간대 제외 등)로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설정하셨나요?	
매개자	장애인의 개별 접근성 요소를 지속적으로 살피며 수정, 재구성할 인력이 상시 배치되었나요?	
	중증장애인이 새로운 표현도구나 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1:1로 배치되었나요?	
공간 및 환경	장애인이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교육 장소로 이동할 경우, 주변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 등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나요?	
	교육 장소에 휠체어 입장이 가능한가요? (주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1층 이외 장소의 경우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 등)	
	교육 장소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나요?	
	장애인이 프로그램 중간이나 이전, 이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나요?	
	시각장애인을 고려할 경우 공간 내에 점자블록이나 점자 안내물이 설치되어 있나요?	
소통 방식	프로그램 홍보 및 교육 대상 모집 과정에서 홍보물에 쉽고 자세한 표현을 사용하였나요?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온라인 홍보 및 모집 과정에서 이미지나 텍스트에 대한 음성 해설 안내를 하였나요?	
	문화시설의 홍보 소식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을 고려하여 지역 내 장애인 커뮤니티나 단체 등에 직접 홍보를 시도하였나요?	
	프로그램 홍보 및 모집 관련 문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장애인이나 보호자, 매개자 등이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도록 하였나요?	

분류	체크리스트	응답
표현 재료 및 도구	장애인의 신체나 표현 방식을 고려하여 표현 재료나 도구를 재기획하거나 준비하였나요?	
	장애인이 기존에 있던 표현 도구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 장치나 보조 장비를 마련하였나요?	
	장애인이 새로운 표현 방식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존 재료가 아닌 다른 재료나 도구를 제작하거나 시도하는 노력을 하였나요?	
성과 환류 및 평가	프로그램 종료 후 성과나 의미를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장치를 기획하였나요?	
	온/오프라인 설문 등을 통해 교육 대상의 참여 소감 등을 수집할 경우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문 방식을 다양하게 기획하였나요?	



## 그림목차

- [그림 1] 장애인 대상 예술교육 종류 16
- [그림 2]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접근성 요소 19
- [그림 3] 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프로세스 37
- [그림 4] 발달장애인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_ 움직임언어 <춤추는 별별별> 45
- [그림 5] 전시 <길은 너무나 길고 종이는 조그맣기 때문에> 연계 교육 프로그램 홍보물 51
- [그림 6] 뉴욕대학교 도서관의 저감각 공간 53
- [그림 7] 평면 글자 블록 55
- [그림 8] 입체 글자 블록 56
- [그림 9] <포르르와르르르사르르> 설문조사 모바일 페이지 59
- [그림 10] 터치 투어 63
- [그림 11] 스미스소니언 미국 미술관, ‘Verbal Description Tour’ 64
- [그림 12] 환기미술관, ‘감각 프로젝트’ 65
- [그림 13] 공간 오감 입구와 촉각체험자료 반가사유상 66
- [그림 14] 공간 오감 촉각 작품 체험 67
- [그림 15] 공간 오감 시각장애인용 타블렛 68
- [그림 16] 서울시립미술관,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갤러리 토크 이야기의 모양’ 동영상 콘텐츠 69
- [그림 17]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Discoveries 교육 현장 70
- [그림 18]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Seeing Through Drawing 교육 현장 70
- [그림 19] 뉴욕 교통박물관, Subway Sleuths 교육 현장 71
- [그림 20] 리움미술관, [2023 감각 너머] 감각 풍경, 공간의 울림 워크숍 사진 74
- [그림 21] 아르코미술관, 2023 무장애 국제예술 라운드테이블 포스터 76
- [그림 22] 영국 Newcastle Theatre Royal 77
- [그림 23] 모두예술극장 접근성 데스크, 무대모형 79
- [그림 24] 미국 매스니 의료&교육센터의 Arts Access 프로그램 80
- [그림 25] 영국 LSO(London Symphony Orchestra)의 Create Monday Club 81
- [그림 26] 미국 SAY의 Confident Voices 82
- [그림 27] 스위스의 Theater Hora(극단 호라) 83
- [그림 28] 미국 VSA 프로그램 84
- [그림 29] 영국 Southbank Centre Youth Voices 85
- [그림 30]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점자 악보 86

## 표목차

- [표 1]     학습 및 교육 보조기기 예시 33
- [표 2]     기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접근성 요소 38
- [표 3]     장애인 예술교육에서의 상황별 접근성 기획 41
- [표 4]     홍보 및 모집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접근성 요소 47
- [표 5]     운영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접근성 요소 52
- [표 6]     성과 환류 및 평가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접근성 요소 58
- [표 7]     장애인 예술교육에서의 접근성 관련 체크리스트 89

## 문화시설별 접근성 가이드

발행일 2024년 8월  
발행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발행인 김형희

사업주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운영총괄 신상미 예술지원부 부장  
기획편집 정지윤 예술지원부 대리

사업수행 메타기획컨설팅  
연구총괄 오성호 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  
연구책임 김영익 메타기획컨설팅 실장  
연구PM 한수지 메타기획컨설팅 팀장  
연구 강재훈 메타기획컨설팅 실장  
엄태은 메타기획컨설팅 협력 컨설턴트  
정영석 피알원 시니어 컨설턴트

협력기획/공동집필 정종은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  
최보연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  
김원영 공연예술가/작가  
최선영 문화예술기획자

장애 관련 감수  
시각장애 부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청각장애 부문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지체장애 부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각/청각장애 부문 헬렌켈러센터  
발달장애 부문 함께웃는재단

디자인 그라핀  
편집 김현식, 조성익  
인쇄/제책 에프 스튜디오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12  
02-760-9735  
<https://www.kdac.or.kr>

ISBN 979-11-986552-3-3  
ISBN 979-11-986552-2-6 (세트)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